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연구 과제 보고서

온라인 영역과 학술 분야에 비친 스타트업 인식 경향성 연구
-국내 및 해외 온라인 매체, 학술 논문, SNS의 비교를 중심으로-



**STARTUP
ALLIANCE**

2019년 9월 26일

책 임 연구 원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김장현 ASIALICS(아시아혁신학회) 회장
연 구 원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김병준
연 구 원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이겨레
연 구 원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강찬희

목차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1
3. 이론적 배경	2
4.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7
4-1. 연구 대상	7
4-2. 연구 기간 및 자료 기술통계량	9
4-3. 연구 방법	12
5. 연구 결과	13
5-1. 언론사별 분석 결과	13
5-1-1. 국내 언론 분석 결과	13
5-1-2. 해외 언론 분석 결과	20
5-2. 논문별 분석 결과	25
5-2-1. 국내 논문 분석 결과	25
5-2-2. 해외 논문 분석 결과	30
5-3. SNS별 분석 결과	35
5-3-1. 국내SNS 분석 결과	35
5-3-2. 해외SNS 분석 결과	40
6. 연구의 시사점	46
참고 문헌	47

<표>

1. 채널별 자료 수집 목록	7
2. 페이스북 페이지 내용 샘플	8
3. 질의어 목록	9
4. 기술통계량	10

<그림>

1. 전통적 의제 설정 모델의 접근과 네트워크 의제 설정	2
2. 다이나믹 토픽모델(DTM)의 구조	6
3. 스타트업과 벤처 용어 추세선	11
4. 데이터 분석 과정	12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기의 화두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공유 플랫폼, 헬스케어 등 새로운 분야의 부상과 기존 산업계의 융합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빠른 속도로 확산 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과 다른 형태의 기업, 즉 스타트업의 확산을 증대 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타트업이란 스타트업 컴퍼니(영어: startup company) 또는 스타트업(영어: startup)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한다. 스타트업이란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budding company'라는 의미로 1976년 포브스(Forbes) 잡지에 기술되었다(Smolová, Kubová, & Urbancová, 2018). 포브스는 신생 기업, 더 나아가서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 기술 분야의 인큐베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을 묶어 지칭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을 해석했다. 한편 최근에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미국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다.

기존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 특히 IT기술을 활용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나, 주로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경험적 차원에서 지각되는 양상이나 학술 분야에서 어떠한 주제가 등장하였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왔고(이정우 외, 2018), 거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살피는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손동원(2017)은 스타트업의 양적 확대에 정부의 육성 정책이 큰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청년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슬로건이 담겨져 있고 이는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중기부에서 책정한 정부 창업 지원액 규모는 1조 1180억원으로 해당 사업비는 2018년 대비 43.4%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중기청의 창업 기업 생존율 현황에 의하면 기업의 5년 내 생존율은 27.5%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OECD 주요국가들(핀란드, 독일, 스페인 등)의 평균치인 40.9%에 비해 13%p정도 낮은 수치이다. 창업의 연차별 생존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띄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어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망하지 않고는 합리적인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을 되짚어보지 않고 기존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정책을 실행할 경우, 처음에 의도하였던 정책적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스타트업 담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살피는 연구가 필요한 시기이다.

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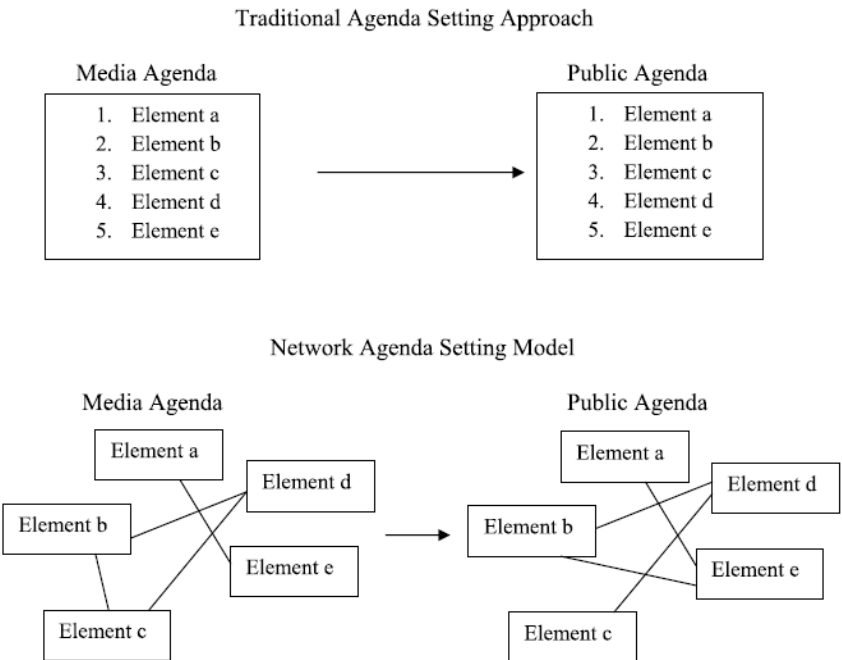
사회적 인식을 조망하기 위해선 대중의 인식을 살핌으로서 그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대중의 인식을 통계적 검정에 의해 추정하는 방법이나 언론의 보도를 수집하여 매스컴의 시각에 의해 여론을 지각할 수 있다고 연구하는 방법들이 주로 쓰여 왔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온라인 공간의 보편화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매체를 접하고 소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 또한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는 글을 읽음으로써 정보를 습득하여, 자신이 선택한 자료를 수용 또는 평가하는 일련의 과

정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이 기존의 전통적인 일방향성 플랫폼에서 상호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 분석이나 프레임 분석과 차별화하고자 매체 플랫폼 환경에서 형성된 의제가 SNS 환경이나 학문적 관심에 끼친 영향을 살피고, SNS 환경이 언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으로서 역 의제 설정 기능 수행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채널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흘러왔으며, 스타트업에 이 시점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며,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항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3. 이론적 배경

고프만(Goffman)은 현실에 대한 지각이 곧 미디어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실이나 상징성이 라고 보았는데(Goffman, 1974), 프레임이란 메시지를 형성하고, 또 이것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온라인 공간의 보편화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서 회자되는 의제들이 곧 대중의 인식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오(Guo)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의제설정을 연구하는 네트워크 의제설정 모델(Network Agenda Setting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미디어 의제와 공공 의제 사이의 대상(objects)과 속성(attributes)의 상호 관계에 관한 그림을 통해 의제설정 모델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Guo, 2012).



<그림 1> 전통적 의제설정 모델의 접근과 네트워크 의제설정 모델

의미연결망 분석은 의제에 관하여 거시적인 틀에서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개별적인 키워드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의제 설정 모델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때 기사의 단어는 연결망 단위에서 노드(node)로 인지되는데, 각각의 노드는 단어간 거리와 공출현(co-occurrence) 등을 통해 서로 연결성을 갖는다. 위에서 언급한 노드간 연결성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중앙성(centrality)이라는 개념이 활용된다. 연결망 중앙성 지표는 프리만(Freeman, 1979)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그는 중앙성을 지역 중앙성(local centrality)과 전체 중앙성(global centrality)으로 구분하였다.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그 노드는 높은 지역 중앙성을 지니게 되고, 한 노드가 전체적인 연결망의 구조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고 있을 경우 그 노드는 높은 전체 중앙성을 지니게 된다고 말했다(김용학, 2014). 김용학(2014)에 의하면 중앙성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연결 중앙성(degree centrality)

연결 중앙성의 경우 연결정도(degree)를 통해 중앙성을 파악한다. 연결 정도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한다. 이때 중앙성은 노드가 다른 노드로 향하는 엣지(edge)의 방향에 따라서 중앙성의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엣지가 해당 노드로 향하는 방향들의 연결에 대해서는 내향 중앙성(in-degree centrality)이라고 부르며, 노드에서 밖으로 향하는 방향의 연결들에 대해서는 외향 중앙성(out-degree centrality)라고 부른다(김용학, 2014).

근접 중앙성(close centrality)

한 점의 전체 중앙성을 표현하는 지표는 근접 중앙성으로서 다른 노드들간의 근접성(closeness)을 통해 계산된다. 이때 근접성을 나타내는 거리(distance)는 두 노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를 지칭한다. 경로거리의 합산이 작을수록 근접 중앙성이 높으며,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엣지의 방향에 따라서 내향 인접성(in-closeness)와 외향 인접성(out-closeness)로 구별된다(김용학, 2014).

매개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매개 중앙성의 경우 사이 중앙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며,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결에 있어서 한 노드가 다른 노드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최단 경로(geodesic)에 위치할수록 매개 중앙성이 높아진다(김용학, 2014). 매개 중앙성은 일종의 중개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아이겐벡터 중앙성(eigenvector centrality)

아이겐벡터 중앙성은 위세 중앙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위세 지수(prestige index)를 반영하여 계산된다. 위세 지수란 특정 노드에 연결된 다른 노드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두는 계산방식이다(김용학, 2014). 이는 의미가 부족한 노드들과 연결된 노드보다 강력한 중앙성을 이미 갖는 노드와 연결된 특정 노드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방식이다.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대규모로 묶인 문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각 문서마다 함의된 주제(topic)들을 찾아내는 모델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비정형 문서의 집합에서 추상적인 주제를 찾기 위해 기계학습을 이용한 통계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비정형 문서에서 잠재된 의미구조를 찾을 수 있는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하나이다(Blei & Lafferty, 2006). 즉, 토픽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문서집합에서 유사한 의미라고 추정되는 문서들을 군집화하여 표현하고, 맥락상 의미가 유사하다고 보이는 단어들을 주제별로 묶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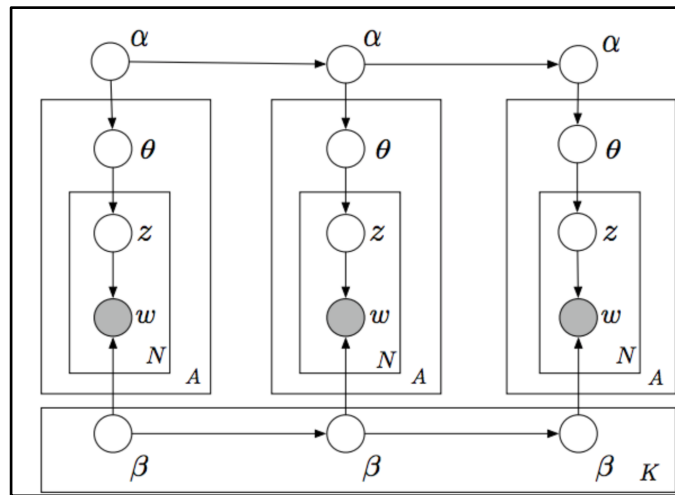
토픽모델링 상의 각 토픽마다 특정 주제에 관한 단어들이 분절화된 다른 단어들과 비교하여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추이를 보이는데(Blei, Carin, & Dunson, 2010), 예를 들면 스타트업과 관련된 토픽에서는 “창업”과 “경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가 높게 등장하는 반면, 취업에 관한 토픽에서는 “취준생”과 “자기소개서”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는 빈도수가 더 높을 것이다. 한편 “~한다”와 같은 일반적인 단어들은 두 개의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더라도 큰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여러 문서에서 공히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유사성을 갖게 되며 잠재적으로 주제라고 유추할 수 있다. 즉, “창업”과 “경영”을 하나의 주제로 가정하고 “취준생”과 “자기소개서”를 다른 주제로 가정해 하는 모델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것이 토픽 모델링의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Blei, Carin, & Dunson, 2010).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며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매 시간 생성되는 텍스트의 분량은 인간의 텍스트 처리 능력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토픽 모델링은 기계학습과 통계학을 이용해 알고리즘을 구축 후 자동적으로 비정형 문서들의 토픽을 정리하여 각 문서의 모델링을 도와주는데,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토픽 모델링의 대표적 기법 중 하나로써, 어느 확률 분포와 파라미터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랜덤 프로세스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하여 비정형 문서의 집합에서 어떠한 토픽들이 존재하는지 알기 위한 확률 모델이다. 이는 알고리즘 계산에 의해 특정 토픽에 특정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표기해 줌으로써 토픽과 문서별 단어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토픽모델링은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파악하기 위한 자연어처리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좀 더 풀어서 보자면, 토픽모델링은 하나의 문서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단어들과 의미들의 군집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현저하게 드러나는 이슈의 흐름이나 패턴을 파악하는데 강점을 지니고 있다(박자현, 송민, 2013). 즉 토픽모델링이란, 구조화되지 않은 문서들의 집합 속에서 단어의 패턴을 파악하고 문서 내에 잠재되어 있는 주제들을 발견하고, 나아가 주제 사이의 관계를 살필 수 있게 도와주는 통계적 추론 알고리즘이다(Blei, 2012). 수학적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은 문서를 토픽의 확률적 혼합체로 나타내고, 그렇게 나타나는 각 토픽을 단어의 분포로 표현함으로써 문서의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인데(박자현, 송민, 2013), LDA 모형은 ‘문서’, ‘토픽’, ‘단어’ 총 세 개의 분석 단계를 지니는 모형으로, 여기서 문서의 집합(collection)에 관한 세부 요소들은 문서에 내재한 토픽들의 유한한 값들의 합산으로 모델링(modeling)되고, 각각의 토픽들은 단어에 들어있는 토픽확률의 무한 값의 합으로서 모형화 된다(Blei et al., 2003).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문서집합에 내재되어 있는 주요 토픽들의 집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동적 토픽 모델링(Dynamic Topic Modeling, DTM)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추출하려면 텍스트 내 어휘 배열의 구조를 올바르게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 보고서는 뉴스 기사, 논문의 초록, SNS 게시물과 같은 문서를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수집하여 분석했다. 여기서 주제는 과거의 주제로 부터 시간에 따라 진화하고, 또한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시간적 토픽 진화의 동적 구조와 매번 토픽 계층의 정적 구조를 동시에 고려하는 동적 토픽 모델이 필요하다(Hida, Takeishi, Yairi, & Hori, 2018). LDA는 정태적 토픽모델로써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주제의 변화를 반영하기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는 DTM(Dynamic Topic Models)의 개념을 접목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DTM은 LDA의 개념을 확장하여 주제 표현이 고정된 시간 간격으로 진화 할 수 있도록 LDA의 개념을 확장하는데, LDA의 시계열 표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한다(Blei & Lafferty, 2006). DTM은 시계열에 따른 연속된 데이터의 토픽에서 찾아 해당 주제에서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토픽을 제시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제와 그 주제에 따른 토픽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DTM은 기존의 LDA에서 파라미터를 평균으로 한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표본 추출을 하였다고 가정함으로써 시계열적인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2>의 상자는 각 시점을 의미하며 좌측 순으로 N , $N+1$, $N+2$ 를 의미한다. 각 주제의 자연 매개 변수 β_t , k 는 주제 비율에 대한 로지스틱 정규분포의 평균 매개변수 α 와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림 2. 다이나믹 토픽모델(DTM)의 구조>

블레이와 래퍼티(Blei & Lafferty, 2006)는 다항식 주제의 자연 매개 변수 및 로지스틱 모델에 대해 가우스 시계열을 사용하여 이산 데이터를 살피는 DTM모델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순차적인 데이터에 대한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추론 알고리즘을 도출하였다. DTM은 정확한 예측 모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 문서 집합을 탐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는 다른 문서에서의 빈도수는 낮으며 해당 문서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단어들에게 높은 수치를 주어서 어떠한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보이는 빈도가 높지만, 전체 문서에

서의 출현 빈도가 낮은 값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TF-IDF는 TF와 IDF를 곱한 값으로 점수가 높은 단어일수록 다른 문서에는 많지 않고 해당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의미한다.

TF(d, t) : 특정 문서 d에서의 특정 단어 t의 등장 횟수

TF(단어 빈도, term frequency)는 특정한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의미한다. TF값이 높을수록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고 판단할 수 있다.

DF(t) : 특정 단어 t가 등장한 문서의 수

DF(문서 빈도, document frequency)란 오직 특정한 단어인 t가 등장한 문서가 몇 건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IDF(d, t) : DF(t)에 반비례하는 수

일반적으로 IDF(역문서 빈도,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DF값에 역수를 의미하며, 이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log를 취한 값을 의미한다.

4.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4-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뉴스와 논문 그리고 SNS 게시글을 포함한다. 우선 언론사의 경우 국내 매체 중, 보수와 진보 및 경제지를 구분하여 대표성을 띄는 매체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외 매체의 경우 매체영향력을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였으며, Bloomberg 등 유료구독 매체의 경우 수집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논문의 경우 국내 온라인 논문 서비스 업체 중 대표성을 띄는 디비피아를 채택하였고, 해외 논문의 경우 Web of Science를 수집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SNS의 경우 트위터, 페이스북 및 국내 커뮤니티를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SNS의 경우 아래 언급될 사유들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표 1. 채널별 자료 수집 목록>

	국내	해외
언론	조선일보 / 중앙일보 한겨레 / 경향신문 한국경제	New York Times Los Angeles Times Washington Post
논문	DBpia	Web of Science
SNS	트위터, (뽐뿌, 클리앙)	트위터

우선 언론사의 경우, 국내 언론사 웹페이지마다 각각의 기사 수집 코드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해외 언론의 경우 Lexis라는 Database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영문 기사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논문 초록의 경우 국내 논문 서비스 업체인 디비피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코드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Web of Science의 경우 자료의 양이 크지 않아서 연구 참여진이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다. 끝으로 트위터의 경우 Github의 자료를 참조하여 코드를 작성하였으며, IP주소를 우회 하여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중, SNS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국내 커뮤니티의 경우 자체 방화벽에 의해 IP를 차단하거나, 검색 결과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가령 클리앙의 경우 통합검색창에서 최대 100페이지만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 100페이지가 초과되는 자료는 수집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클리앙의 경우, 커뮤니티 고도화로 인해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면서 특정한 시점 이전의 자료가 사라지는 등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지 못했다. 국내 커뮤니티의 경우, 시간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해외 SNS와의 동등한 비교도 불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페이스북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시기를 넓히거나 좁히더라도 일반인들이 게시한 글의 열람이 약 100개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차선책으로 페이스북 페이지 상에서 ‘스타트업’이란 이름으로 랭크된 상위 페이지와 배달의 민족, 쿠팡 등 스타트업 기업들의 게시글을 수집하였다. 수집결과 특정 페이지의 게시글은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나, 상당수의 페이지는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나, 스타트업이란 질의어와 연관성이 낮은 게시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제된 소수의 페이지 게시글이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기에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음을 밝힌다. 다음은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

글들의 일부 내용이다.

<표 2. 페이스북 페이지 내용 샘플>

페이스북 페이지	내용
스타트업 꿀팁	홈페이지 유지보수, 외주에 대한 리스크 없이 진행하는 법
스타트업스코리아	<스코공지> 2019 지역생활문화 기반 청년창업 지원사업! ✓ 모집기간: ~7월 16일(화) ✓ 지원내용: 최대 1,5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 각 분야 전문가 멘토링, 창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 ✓ 신청방법: 홈페이지 & 이메일 접수▷ https://bit.ly/2XmpeiC ✓ 바로문의: 033-248-7937 / 38317jyy@ccei.kr 냅고 뒤쳐진 듯 보이지만, 지역에는 날것 그대로의 자원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지나간 주인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예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골목들. 그리고 그곳에 커져이 쌓여있는 사람들의 생활, 문화까지! (중략)
쿠팡	오늘 #골드박스 는 모~조리 #먹부림용이구먼~ 편의점 #에그샌드 위치 재현해줄 #에그샐러드 부터! #삼진어묵 #오징어 #자몽 #삼겹살까지! 크~으 \오늘은 최대 67%! https://coupa.ng/bhyUCK 매시간 #타임특가 매일 #골드박스 에다가, #로켓프레시 #오늘의특가 또, 또, 또, 또!!!! #로켓직구 ➔ #정기배송 20%씩! 게다가, 최대 5만원 #장바구니쿠폰 도 있고! #여름상품 ✨ #특가상품 까지 놓치지 말 것!
스타트업 인생-Startup Life	"#스타트업워든지홍보해드려요 #스타트업판로 #스타트업강의 #스타트업성공스토리 스타트업 인생-Startup Life X 한남대학교(Hannam University)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입니다 2019년 7월 HISTORY 포럼을 안내드립니다 (*HISTORY란? 한남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고유의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의 도전과 성장 그리고 성공스토리를 브랜드화 한 것입니다.) HISTORY포럼은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주제는 '스타트업 국내 판로개척 전략' 입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판로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를 모시고 판로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꼭!!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위에 열거한 플랫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질의어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평을 조망하기 위해 일반적인 용어들과 더불어 특정한 회사들도 추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중 엑시트(exit)이란 용어는 질의어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타트업이란 용어를 함께 묶어서 검색하였고,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과 대표자를 묶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거론되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표 3. 질의어 목록>

국문 질의어	영문 질의어
스타트업	startup
창업가	entrepreneur
투자유치	attract raise invest startup
벤처캐피털	venture capital
exit 스타트업	exit startup
배달의 민족 김봉진	uber Travis KALANICK
쿠팡 김범석	airbnb Brian CHESKY
토스 이승건	stripe Patric COLLISON

4-2. 연구 기간 및 자료 기술통계량

연구 자료의 수집 기간 : 2010년 01월 01일 - 2019년 06월 30일

연구 자료의 수집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 연구의 시작점을 어느 시점으로 규정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대표적 질의어인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시기를 살피기 위해 우선 뉴스 등의 정보를 통해 해당 용어의 보편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타트업이란 용어가 활용된 시작점은 2000년대 초반이며 당시 언론은 창업 또는 벤처라는 용어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벤처가 아닌 스타트업이란 용어가 보편성을 띄게 된 것은 2007년 아이폰 생태계가 구축된 이후로 볼 수 있는데(임정옥, 2015), 대표적으로 2010년 배달의 민족이란 어플리케이션의 시작과 더불어 앱(APP)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이와 더불어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사회적으로 지각되었고, 확산되기 시작한 2010년을 연구의 시작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수행중인 시점을 기준으로 2019년 6월까지의 자료를 수집할 경우, 2/4분기까지의 자료가 취합되기에 시간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시기적으로 최근의 자료를 포함하기에 6월 말까지의 자료를 수집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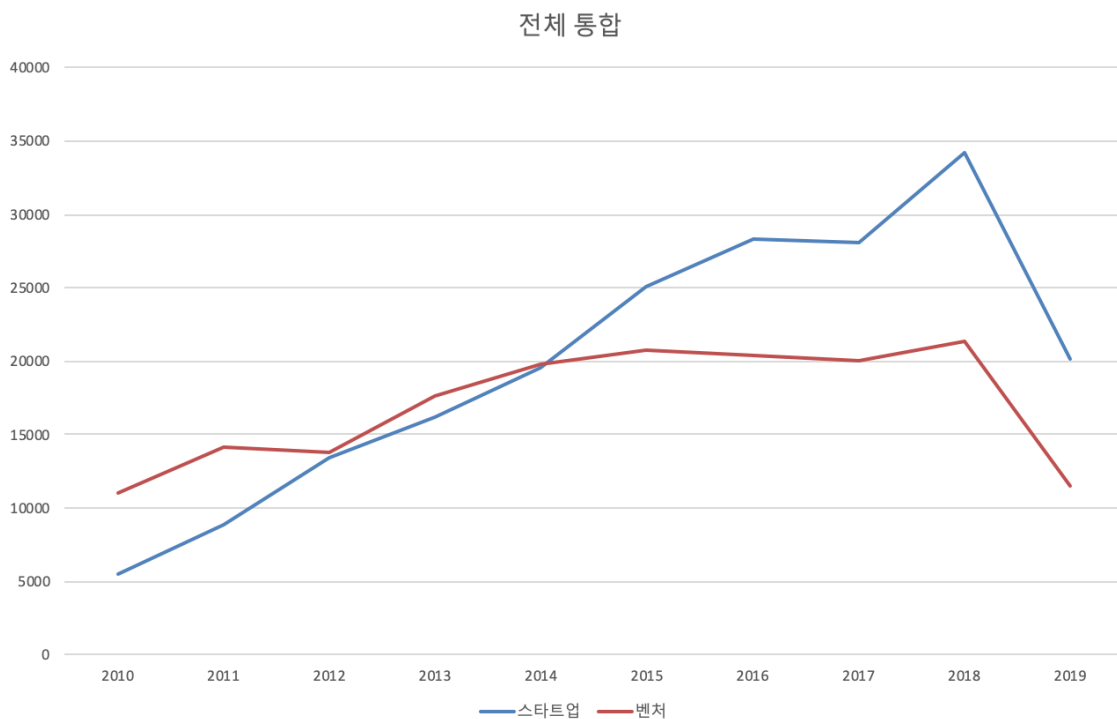
위와 같은 질의어로, 201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문과 영문 플랫폼별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각 플랫폼별 질의어에 대한 자료의 분포를 나타낸 기술통계량 표이다. 아래에 제시된 기술통계량에는 개별 질의어가 동일한 문서에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문서는 중복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특정 스타트업과 해당 기업의 대표자를 함께 검색할 때는, 국내 기업의 경우 국내 채널에서만 검색을 진행하였고, 해외 기업의 경우 해외 채널에서만 검색을 진행하였다.

<표 4. 기술통계량>

채널 질의어	국문			영문		
	논문	뉴스	SNS	논문	뉴스	SNS
스타트업 (startup)	862	20,053	90,811	1,093	21,505	833,798
창업가 (entrepreneur)	10,210	6,758	10,571	12,300	20,075	710,373
투자유치 (investment)	489	7,970	14,657	229	3,149	172,592
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	2,829	5,422	34	1,385	3,530	153,503
exit 스타트업	50	36	833	52	767	40,260
배달의 민족 김봉진	90	260	24,902			
쿠팡 김범석	1	293	281			
토스 이승건	1	123	55			
uber Travis KALANICK				1,456	1,056	19,196
airbnb Brian CHESKY				324	29	5,669
stripe Patrick COLLISON				0	7	4,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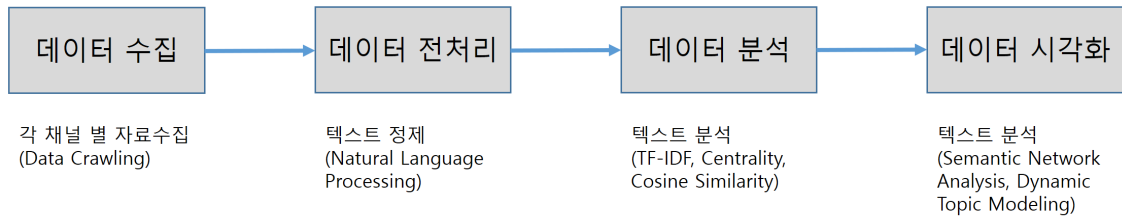
수집된 자료 중, ‘스타트업(startup)’이란 단어와 ‘벤처(venture)’라는 단어를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언론, 논문, SNS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어 사용의 빈도가 변화해나가는 추세를 확인해보고자 다음의 그래프를 시각화하였다.

파랑색 추세선이 스타트업이고 붉은 추세선이 벤처를 지칭한다. 용어 사용의 빈도수를 가지고 흐름을 파악한 결과, 2010년에는 벤처라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4년까지 벤처라는 용어가 더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허나 이러한 흐름은 2015년에 들어와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2019년의 경우 6월 말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하향세로 보이지만, 해당 수치를 2배로 추산해서 살펴볼 경우 스타트업이란 용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스타트업과 벤처 용어 추세선>

4-3. 연구 방법



<그림 4. 데이터 분석 과정>

본 연구는 파이썬(Python) 언어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의 전 과정을 진행하였다. 우선 데이터 수집의 경우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수집 라이브러리인 BeautifulSoup4와 Selenium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후,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PyKomoran, NLTK 등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국문과 영문 자료의 형태소 토큰나이징을 진행하였고, 불용어 처리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조금’, ‘약간’ 등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들의 경우 정제 작업을 통해 제거하였고,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의 경우 합산하는 작업들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제 작업은 데이터 분석 과정과 함께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데이터를 전처리한 뒤, Scikitlearn패키지를 활용하여 코사인 유사도와 TF-IDF 값을 계산하였고 이를 데이터 매트릭스 등의 형태로 재가공하였다.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깃헙(Github) 유저 중 한 사람인 ¹⁾Luke Lefebure의 자료 코드를 참고하여 동적 토픽모델링(Dynamic Topic Modeling, DTM)을 구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분석 기법이 제공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인 Gephi를 활용하여 의미연결망(Semantic Network Analysis)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의미연결망 분석의 경우, Gephi내의 Modularity 알고리즘을 통해 군집화 분석을 진행하였고, 매개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지표를 이용하여 각 노드(단어)들 간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시각화를 진행하였다.

1)<https://towardsdatascience.com/exploring-the-un-general-debates-with-dynamic-topic-models-72dc0e307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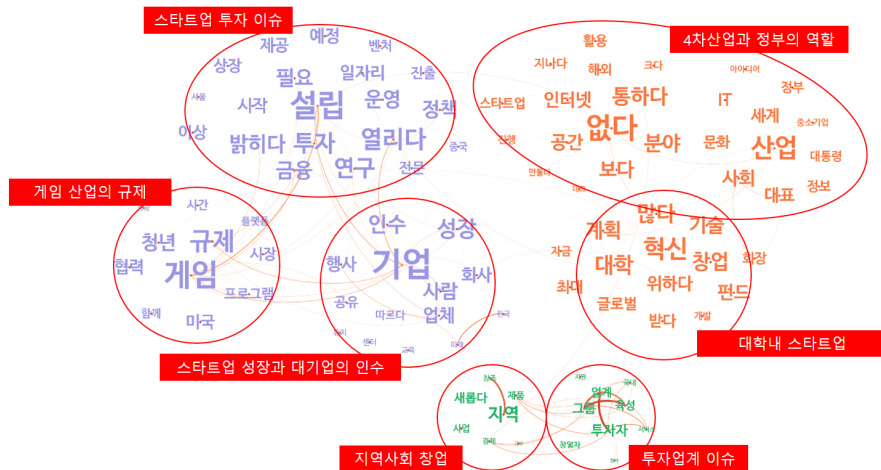
5. 연구 결과

앞서 설명한 개념인 다이나믹 토픽모델링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플랫폼별 토픽을 구분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별 토픽에서의 단어의 중요도를 시각화했다.

5-1. 언론사별 분석 결과

5-1-1. 국내 언론 분석 결과

국내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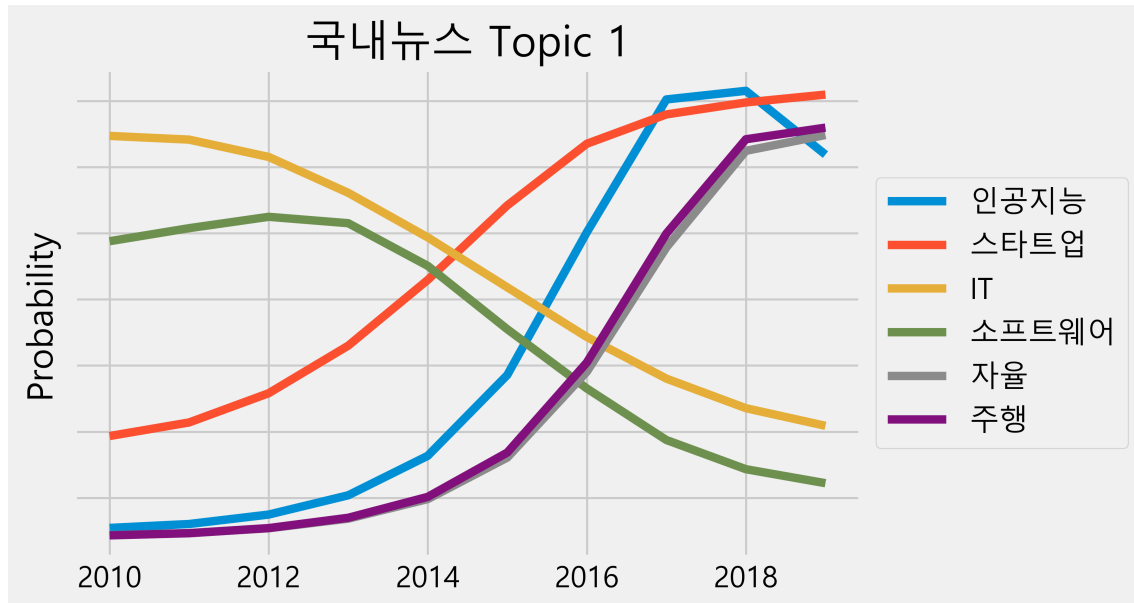


국내 언론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군집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첫째로 보라색 클러스터에서는 스타트업에 관련된 다양한 보도가 총 3가지 클러스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스타트업 업계의 투자와 관련한 보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금융권이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와 기업 금융 부분에서 벤처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대기업에서 인수 또는 투자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 회자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미비한 지원과 규제에 대한 이슈가 함께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해석하자면, 스타트업 투자 및 시장확대에 있어 규제적인 측면이 해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추정케 한다.

둘째로 주황색 클러스터에서는 스타트업에서 정부의 역할과 대학 내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가 엮여져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4차 산업 시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사회적 현안과 함께 다가오는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관련산업 육성에 대한 기사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내 예비 창업자 교육,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기사 등을 통해 대학 내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초록색 클러스터에서는 투자 업계와 지역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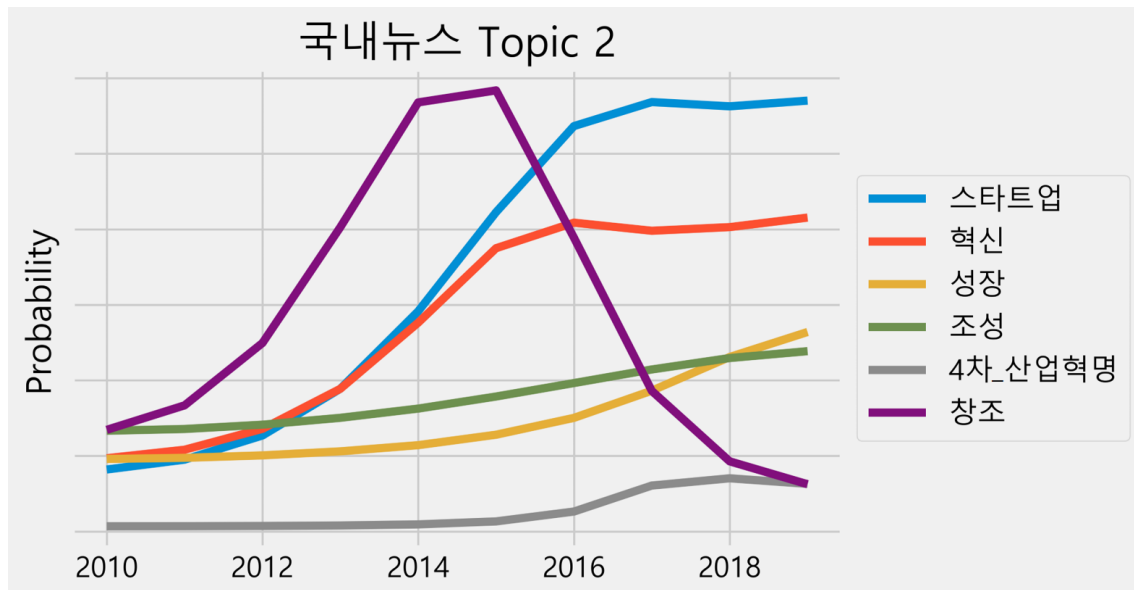
우선 첫 번째 토픽인 인공지능과 스타트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의제들의 중요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2014년을 분기점으로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업영역이 다양한 기업 분야에서 떠오르고,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핵심 뉴스 체크>

2016년 '글로벌 네이버' 신무기는 자율주행차·로봇·AI

네이버가 검색 기술을 넘어 하드웨어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비롯해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의 정보 플랫폼에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을 싣겠다는 것이다. 이해진(사진) 네이버 의장은 이날 국내 창업가 7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네이버가 앞으로 하드웨어를 포함한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위 토픽은 스타트업 담론에 대한 사회적 용어의 소비 추세를 추정케 하는 토픽으로 해석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의제는 2016년 즈음부터 조금씩 상승되는 추세에 있으며, 성장 및 조성이란 키워드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및 스타트업 혁신의 환경적 요소에 대한 강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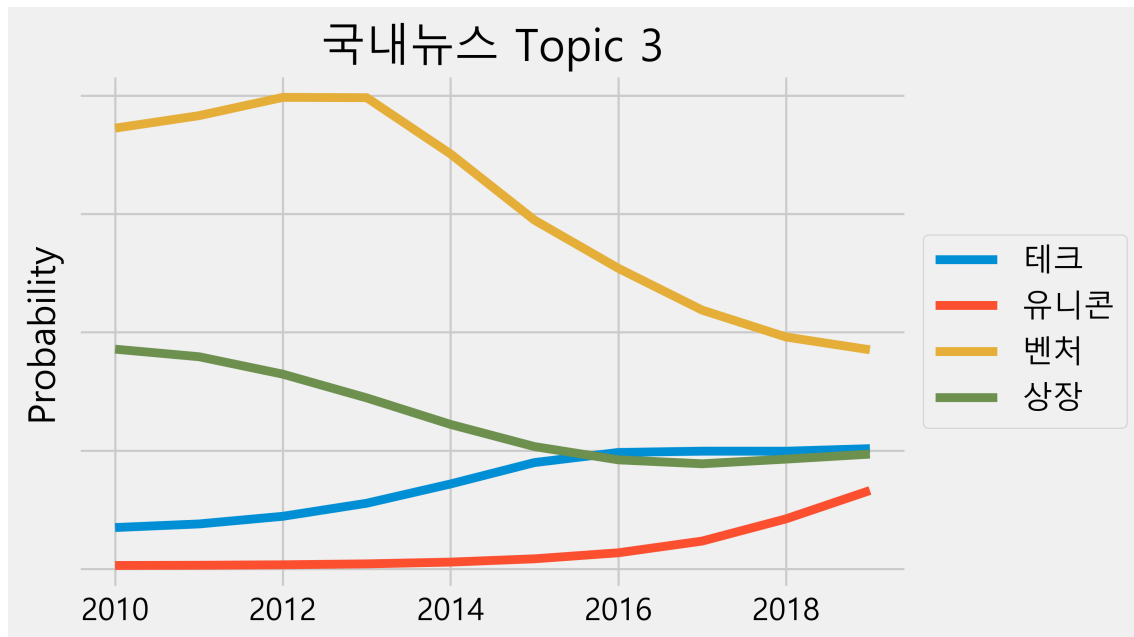
위의 사회적 용어의 소비 추세란 개념을 지지케 하는 대표적 단어로 창조라는 용어를 들여다볼 수 있다. 창조라는 용어는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띄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에서 주장하던 창조경제라는 용어의 부상과, 박근혜 정권이 끝나는 시점을 분기점으로 창조라는 용어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 뉴스 체크>

2016년 "박 대통령, 판교 방문" "스타트업 캠퍼스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박 대통령, 판교 방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진박' 후보 지역구 정치적 논란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대구·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22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에 마련된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했다. (중략)

<스타트업, 유니콘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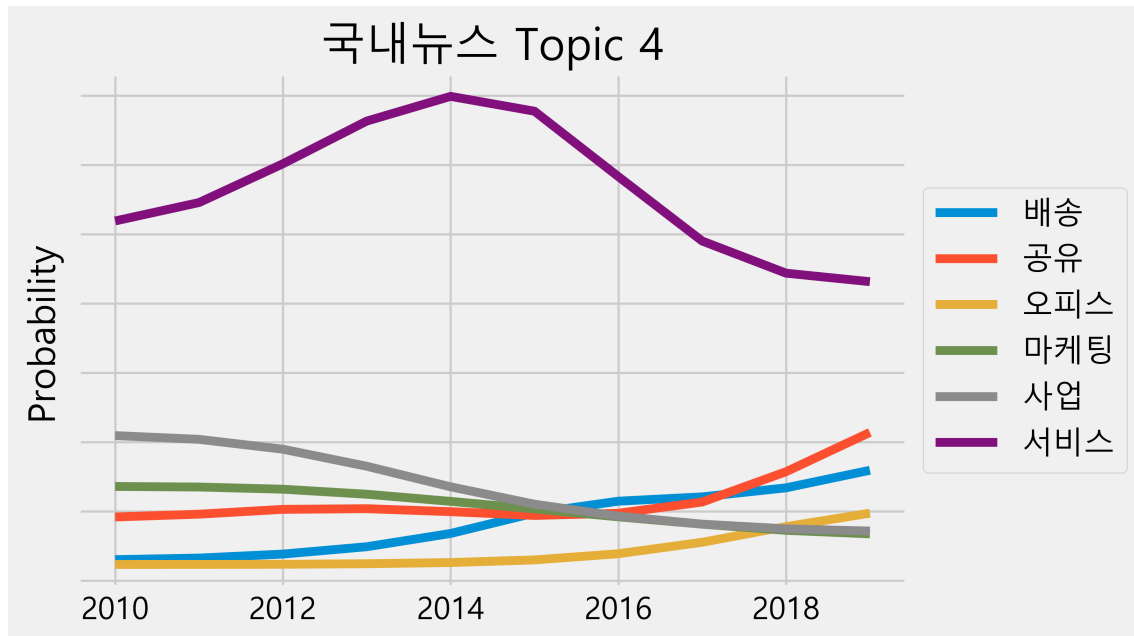
본 토픽은 스타트업 환경에서 기술기반 사업의 약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존의 벤처 1세대 기업과 다른, 어플리케이션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기업들의 약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니콘의 등장은 곧 스타트업 경제의 활성화와 성숙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버블의 확장가능성도 포함하는 양가적 현상이다.

<핵심 뉴스 체크>

2019년 몸값 10억弗 넘으면 유니콘…쿠팡은 국내 첫 '데카콘' 후보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가운데 '유니콘' 타이틀을 거머쥔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 반년간 '배틀 그라운드'의 크래프톤(옛 블루홀),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 '배달의민족'의 우아한형제들 등이 유니콘이 됐다. 야놀자(대표 이수진·사진)도 유니콘 진입을 목전에 뒀다는 소식이다. (중략)

<공유서비스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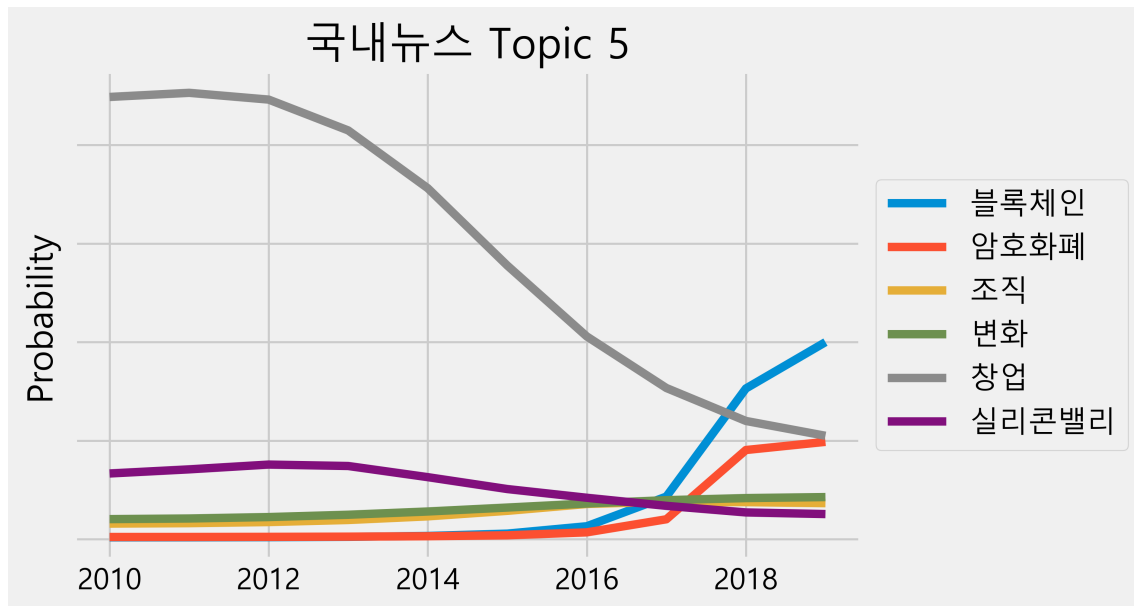
해당 토픽은 공유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개인의 소유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소비하고 소유하는 경제가 활성화되리라 전망하는데, 본 토픽을 통해 현재의 공유서비스에 대한 담론을 유추해보자면, 배송서비스와 오피스 분야에서 공유서비스(공유경제)가 떠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 뉴스 체크>

2019년 박지웅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 "창업은 속도보다 타이밍, 푸드·교육·금융 기회 많을 것"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으로 오프라인 중심 '의식주' 사업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5년여 전부터 관련 회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금융도 가계 지출이 큰 분야로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에 포함했죠."박지웅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사진)는 "의류, 푸드테크, 공유 오피스 등의 사업을 추진해온 것은 이 같은 전략에서 비롯된 것" (중략)

<블록체인기술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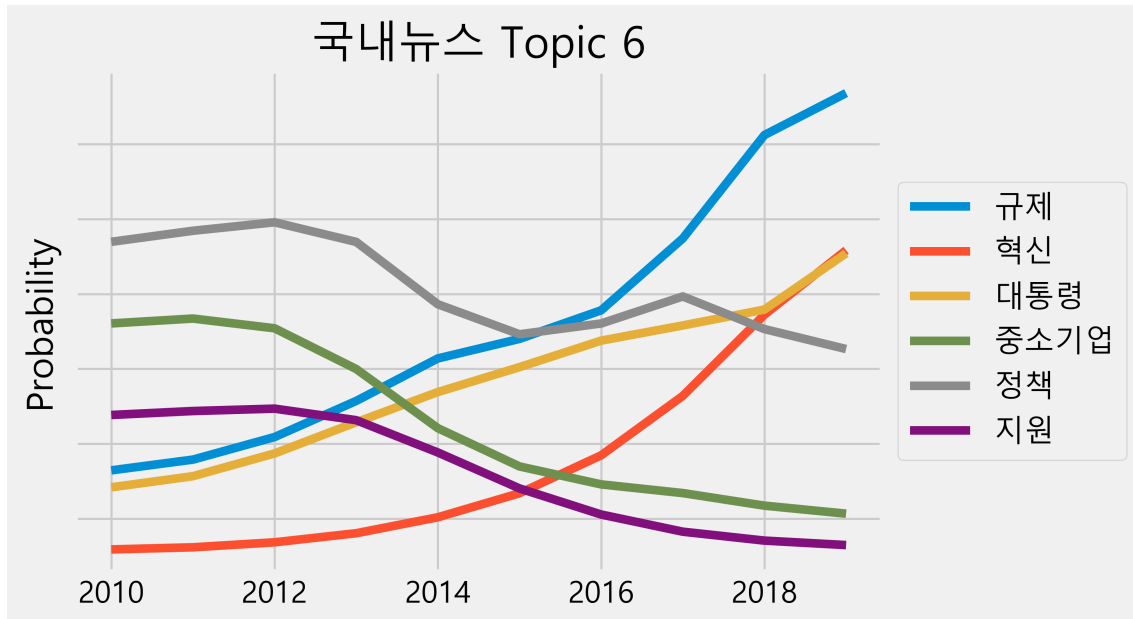
본 토픽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투기적 요소가 존재하는 자산으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시대의 핵심적인 기술분야로서 각광받고 있기에, 언론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핵심 뉴스 체크>

2018년 2030, 왜 블록체인과 ICO에 열광하나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컨벤션홀. 소프트웨어 개발자·디자이너·기획자 등 100여 명이 모인 이곳에선 세미나가 한창이었다. 싱가포르의 유명 블록체인 재단 ‘카이버 네트워크’와 국내외 5개 블록체인 기업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주로 20~30대인 이들은 파티 같은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묻고 토론했다. (중략)

<스타트업 규제혁신>



스타트업 생태계가 확산되면서, 규제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로,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이야기하며 기존의 법체계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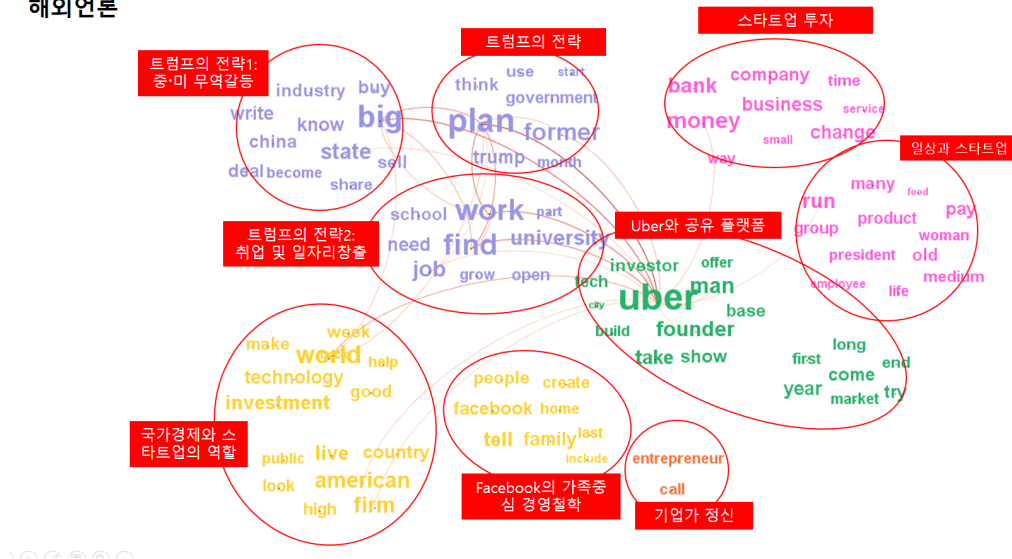
<핵심 뉴스 체크>

2018년 [하선영의 IT월드] 대통령도 독려한 '규제 혁신'... "체감 못한다"는 기업들

규제 풀자며 '배민' 대표 모셨지만...카풀 앱 9개월 헛바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회의에는 정부측 위원 6명이 모두 불참했다. (중략)

5-1-2. 해외 언론 분석 결과

해외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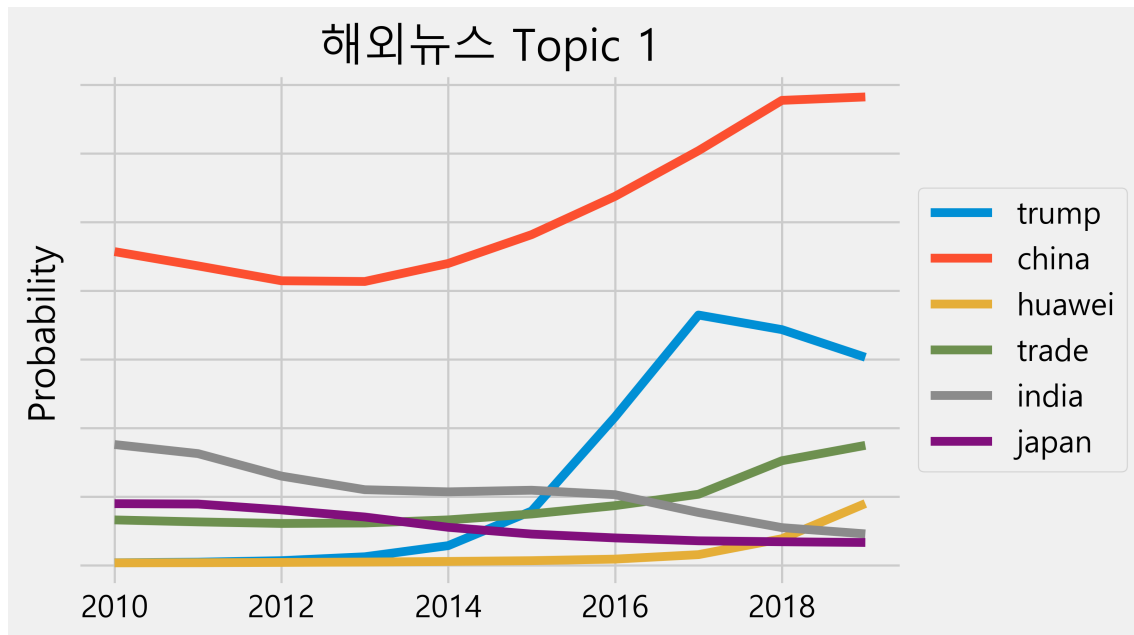
해외 언론을 살펴보면, 다양한 의제들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과 개별적인 기업들의 이슈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파란색 클러스터에서는 트럼프의 전략에 따른 스타트업의 기사가 강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의 자국민 취업 및 일자리 전략 및 정책 관련 보도를 알 수 있으며, 트럼프 출범 이후 미국 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자국민 위주의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자금 조달이 이뤄진다는 기사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스타트업 비자를 폐지시킴에 따른 중국 스타트업의 미국진출에 대한 어려움과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위기의식의 일환으로 심화된 중미 무역 갈등과 관련한 내용이 다른 하나의 군집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로, 핑크색 클러스터에서는 스타트업의 투자와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CT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 투자, 엔젤 투자에 대한 기사 보도의 군집이 형성 되어있고 매체에서 나타나는 스타트업 결제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기사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녹색 클러스터에서는 공유 플랫폼 시장이 강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UBER(우버)”가 여러 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차량 공유, 숙박 공유와 같은 공유 플랫폼 서비스가 현재 스타트업의 트렌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버와 관련된 다양한 기사가 섞여 있었다.

넷째로, 노란색 클러스터에서는 국가 경제와, 스타트업의 역할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온라인 친구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뉴스피드 알고리즘 전환, 저커버그의 활동에 대한 가족의 역할 등에 관한 의제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주황색 클러스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가정신에 관한 기사 보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압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중국 무역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5G기술이 곧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감에 있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트럼프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대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핵심 뉴스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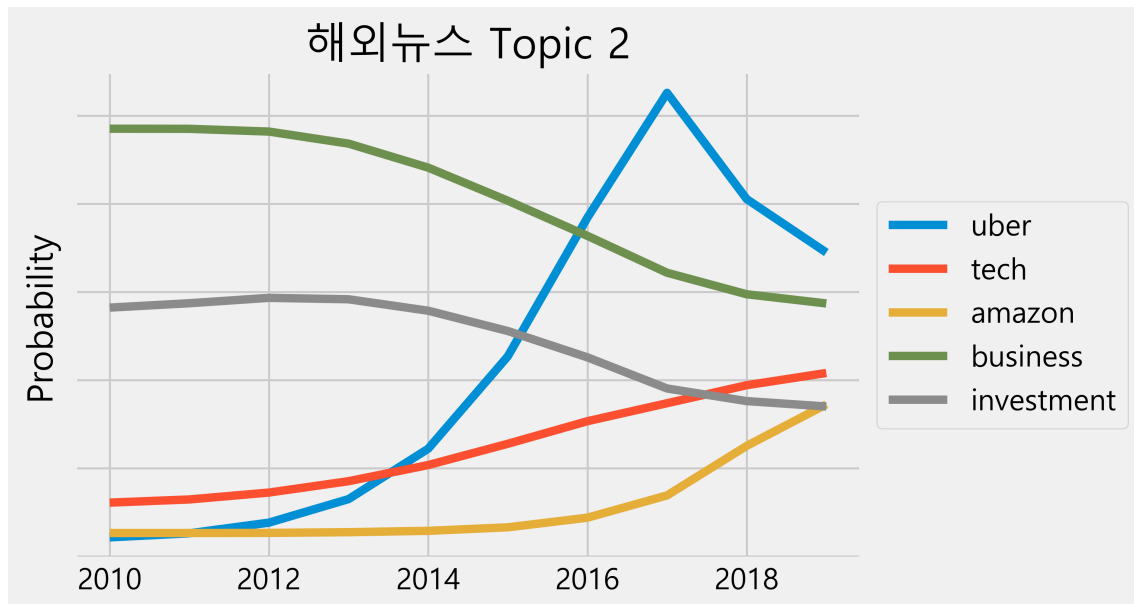
2017년 How This US Tech Giant Is Backing China's Tech Ambitions

As the Chinese government develops drones, the American technology giant Qualcomm is helping. The same go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obile technology, and supercomputers. Qualcomm is also working to help Chinese companies like Huawei break into overseas markets in support of China's "go global" campaign to develop big multinational brands.

Qualcomm is providing money, expertise and engineering for Beijing's master plan to create its own technology superpowers.

Big American companies fiercely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 secrets, fearful of giving an edge to rivals. But they have little choice in China — and Washington is looking on with alarm (중략)

<기술기반 스타트업>



다양한 사업 영역 중에서, 아마존과 우버 관련 토픽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버의 경우 공유 플랫폼 사업의 혁신적인 아이콘으로서 회자됨과 동시에, 성관련 이슈 등 부정적인 의제가 합쳐져서 거대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핵심 뉴스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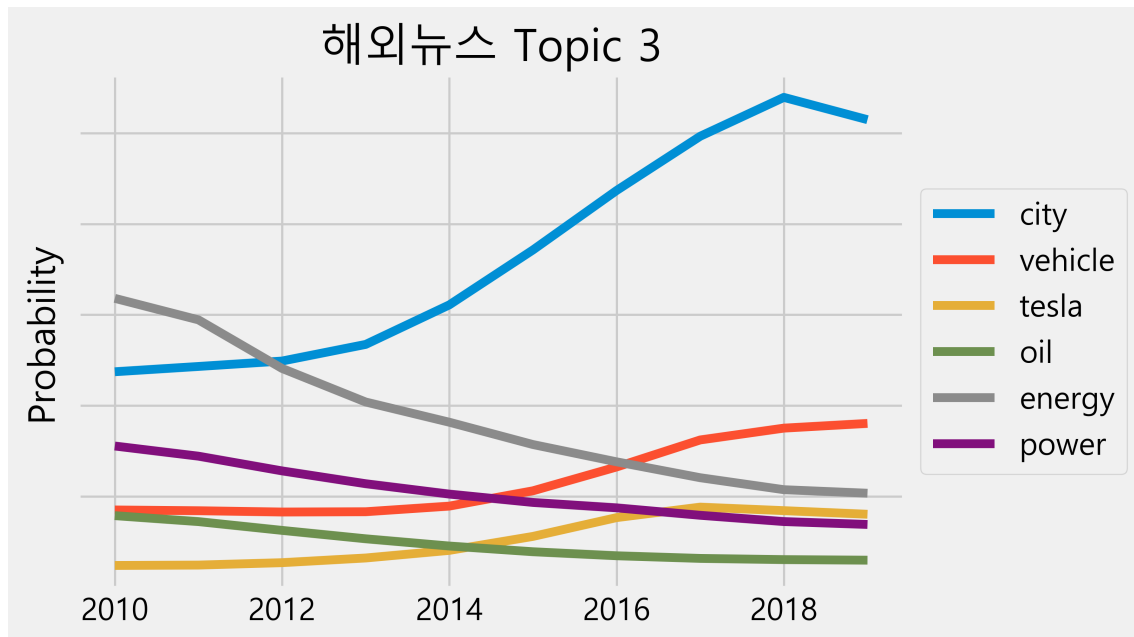
2017년 Why Companies Like Uber Get Away With Bad Behavior

UBER has raised more money than any other tech start up in history. It has achieved the highest valuation by far, almost 70 billion.
It has also undoubtedly lost more money, in less time, than any other young tech company. In 2016, it reportedly lost 28 billion, excluding separate, colossal losses in China, which it exited that year. Amazon, even in its darkest, loss accumulating early years, was a piker compared with Uber (중략)

2017년 Morning Agenda: Proving Uber's Real Value

The litany of corporate scandals at Uber has raised questions about the way the company is run, led to a lawsuit by a main investor, and prompted fund managers to cut their estimates for the price of shares. And yet one core group hasn't been put off: the customers The ride hailing company's gross bookings in its second quarter this year increased 17 percent from the previous quarter to 87 billion. The amount of money it earned after paying its drivers jumped to 175 billion from 15 billion. Its losses narrowed trip requests increased 150 percent from a year earlier (중략)

<스마트시티와 전기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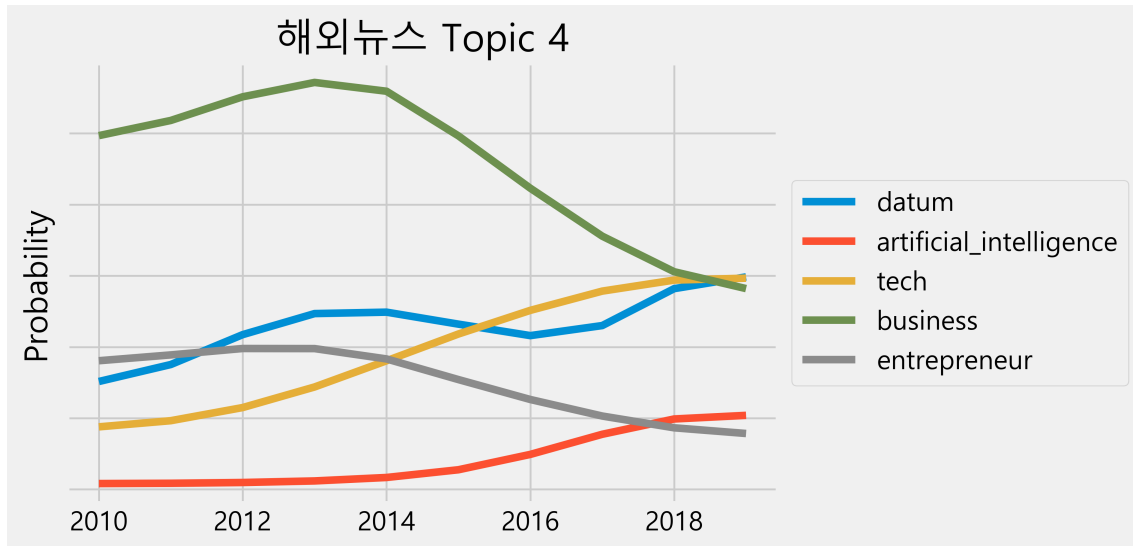
기존의 도시와 더불어 스마트시티에서도 환경 이슈는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유 운송 서비스와 더불어 전기 자동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선두 주자로서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이 본 토픽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Oil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 뉴스 체크>

2016년 SOLAR SYSTEM: Can Tesla go from a sexy car company to a clean energy empire

If you're wondering about Elon Musk's latest vision for Tesla, think Apple succeeded in turning a bland market for electronic devices into a coveted and connected lifestyle where your phone, your tablet, your computer, your watch and your television can all be bought in one place and work seamlessly together. It's about passion too. People continue to line up at Apple stores overnight to be the first to possess the latest iPhone. The company's launch events resemble the gathering of a cult. At Tesla Motors, Musk tapped into that kind of branding magic when he built electric cars that drive fast and look good. The spring launch of the upcoming Model 3 evoked an Apple like frenzy in stores and online (중략)

<AI기술과 데이터>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I는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성장하고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해당 토픽을 통해 언론의 관심을 추정하자면, 데이터 중심의 기술 영역이 여전히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AI분야는 떠오르는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 뉴스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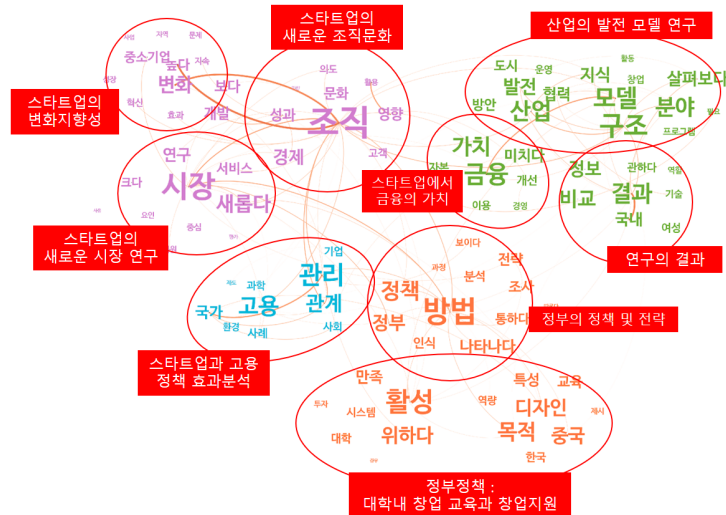
2018년 The U S and China battle for a lead in artificial intelligence

Silicon Valley was once able to write off Chinese tech companies as mere copycats. The big American players, from Twitter to Facebook to Google, all had a Chinese impersonator. But the rise of hugely successful Chinese messaging apps like WeChat not to mention all the US tech companies that failed in China now make clear that the nation's tech companie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중략)

5-2. 논문별 분석 결과

5-2-1. 국내 논문 분석 결과

국내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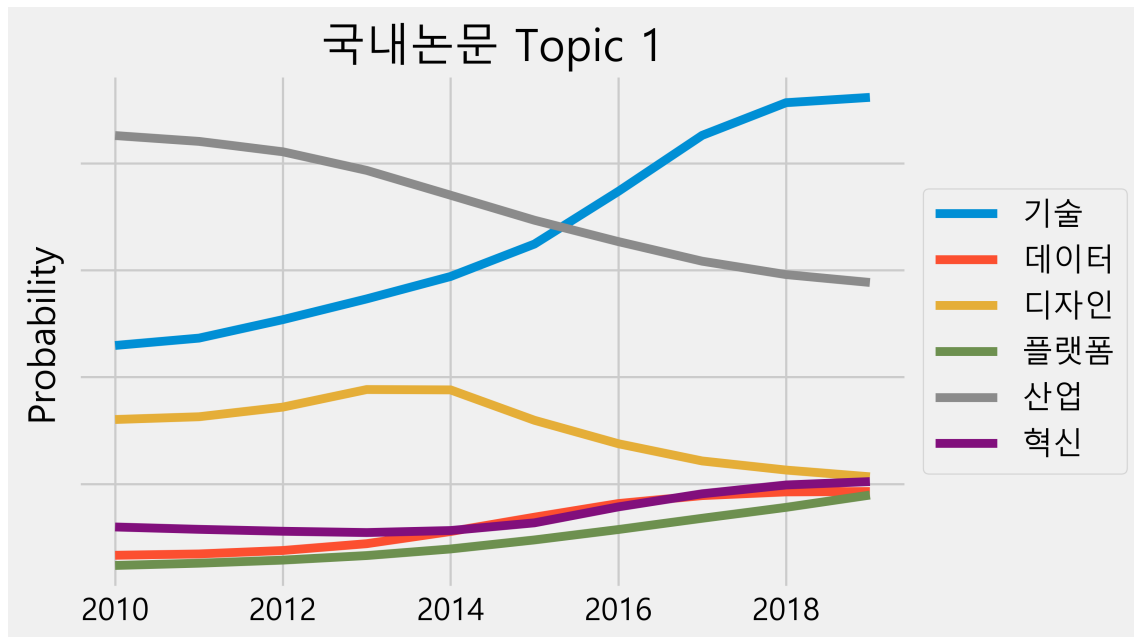


국내 논문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군집이 형성 되어있다. 첫째로, 보라색 클러스터에서 스타트업의 연구에 관한 담론이 3가지 축으로 강한 연결성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시 3가지 축으로 구분되어져서 나타나는데, 먼저 스타트업의 변화 지향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과 조직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형성되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녹색 클러스터에서는 산업발전 모델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그에 필요한 역량에 관한 모델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연구모델의 측면에서 회자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금융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주황색 클러스터에서는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중심의 정책 연구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이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어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 내의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파란색 클러스터에서는 국가의 청년 일자리 및 고용 문제에 관한 해결에 관한 연구가 나타나는데, 이는 고용 정책에 있어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술혁신과 데이터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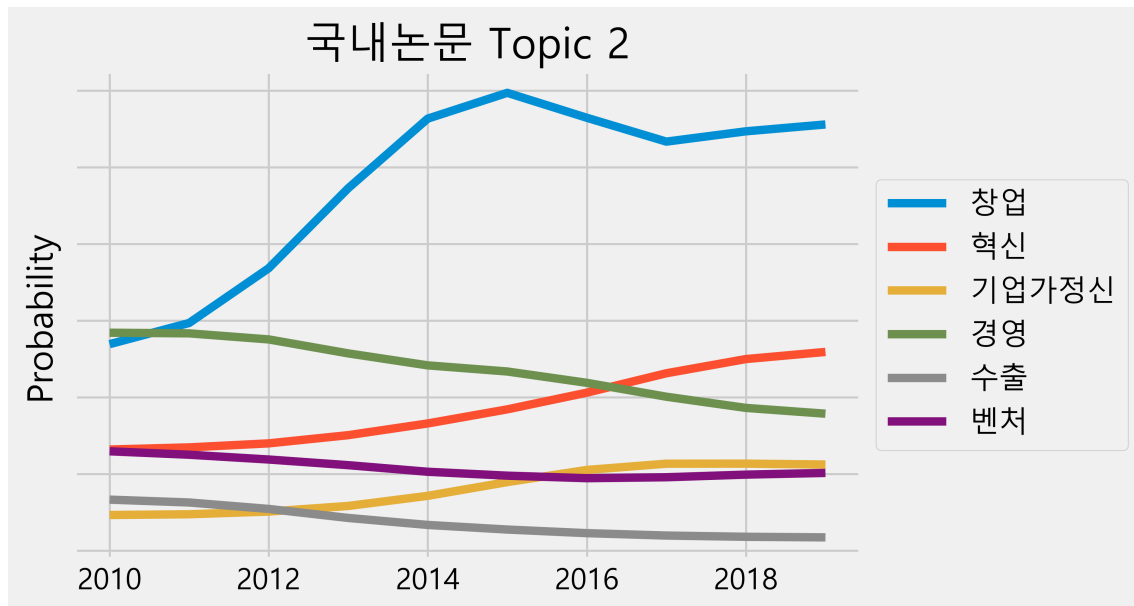
국내 논문 중, 본 토픽은 기술 및 산업 분야에 관한 담론을 드러내고 있다. 디자인, 데이터, 혁신 등의 용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술 논문 영역에서 거시적인 용어보다 구체적이며 미시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 논문 체크>

2019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기업측면의 비즈니스 모델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가장 활발하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방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글로벌 트렌드 분석을 위해 PEST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이슈를 도출하였고, Gartner,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등 ICT관련 조사·분석기관의 사물인터넷산업에 대한 미래전망을 제시하였는데, 사물인터넷은 인프라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산업인터넷(IIoT), 소물인터넷(IoST) 등으로 네트워크 기술경쟁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략)

<기업가정신과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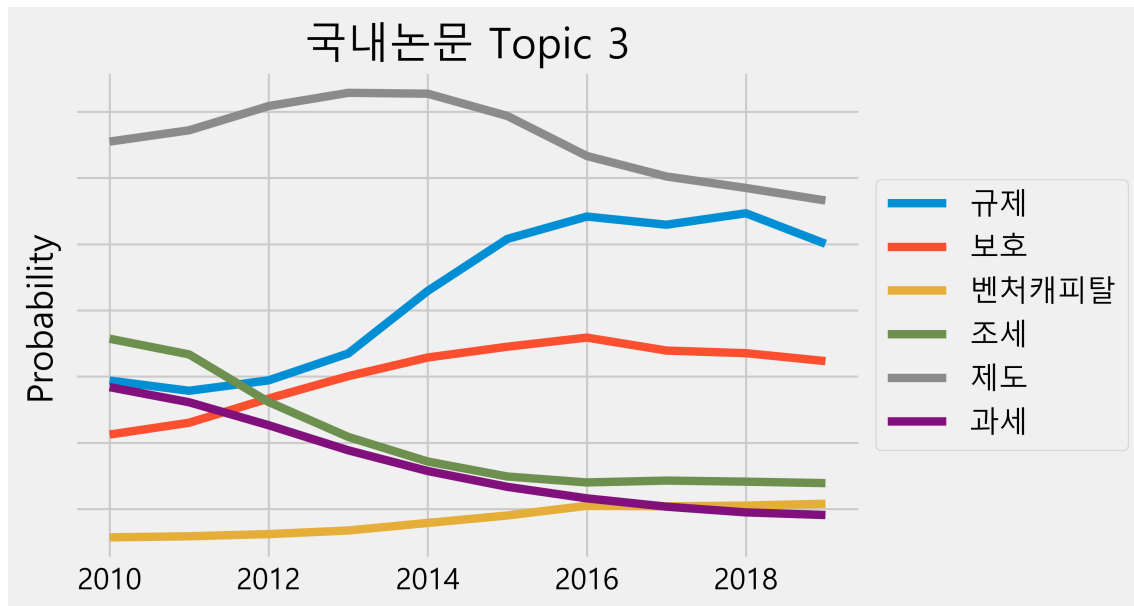
본 토픽은 창업 분야에 있어서 혁신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기업가정신에 대한 의제도 꾸준히 상승해나가고 있으나, 기업가정신보단 여전히 기타 요인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 논문 체크>

2015년 기업가정신, 혁신역량 및 외부협력이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아 활용 가능한 내부자원에 한계가 있어 개방형 혁신을 통해 외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정신, 혁신역량, 외부협력의 관계를 규명하여 기술혁신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략)

<사업규제와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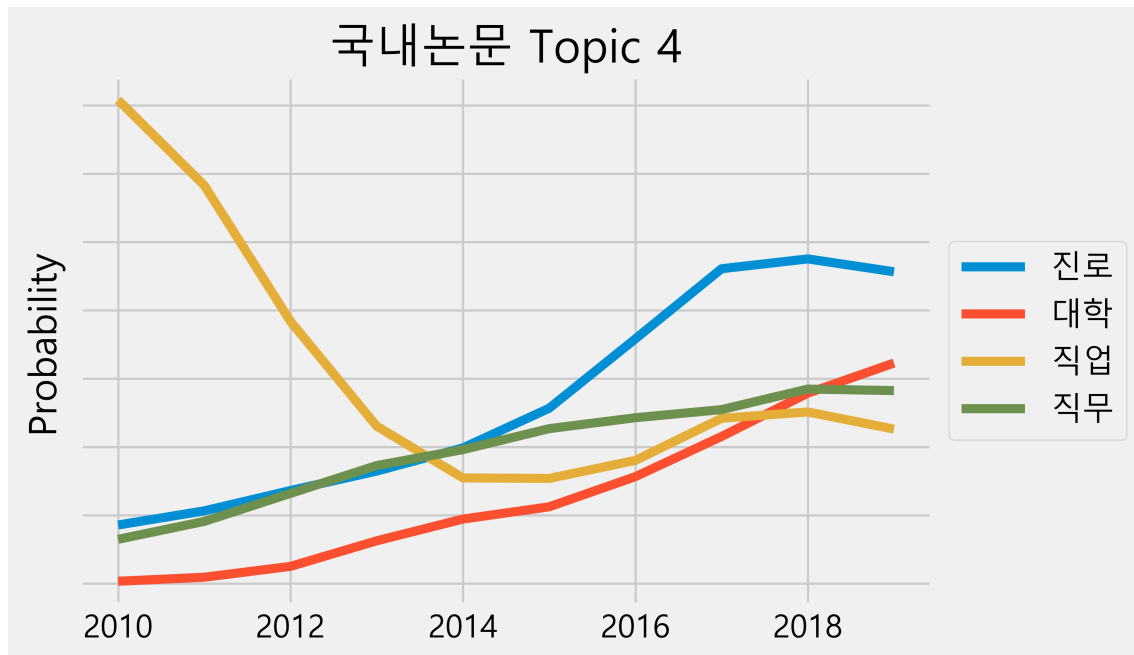
본 토픽은 논문에서 스타트업 성장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와 규제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가령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빠른 대처가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한국의 법과 제도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 논문 체크>

2015년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최근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가 관련 업계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ICT 기업들은 새로운 수익 실현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핀테크 산업이 고속성장을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핀테크 산업의 본격적인 도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ICT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략)

<대학교육의 방향성과 스타트업>



본 토픽은 스타트업 환경의 보편화에 따른 대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학술적 영역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직무 교육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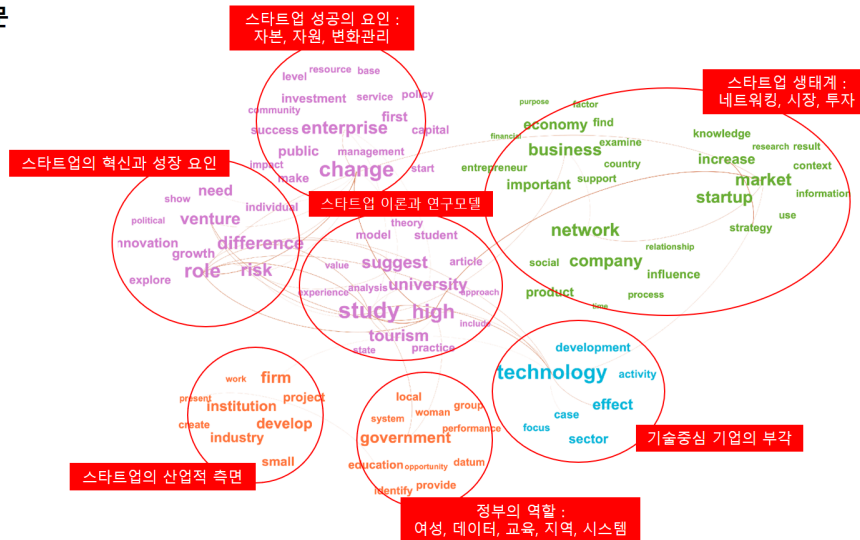
<핵심 논문 체크>

2016년 대학 창업교육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력준비행동 및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 :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경력개발 및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보았다. 이에 창업교육 이수 집단과 미이수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이 기업가적 경력의도 형성에 유의미한 역할의 수행여부를 살펴보았다. (중략)

5-2-2. 해외 논문 분석 결과

해외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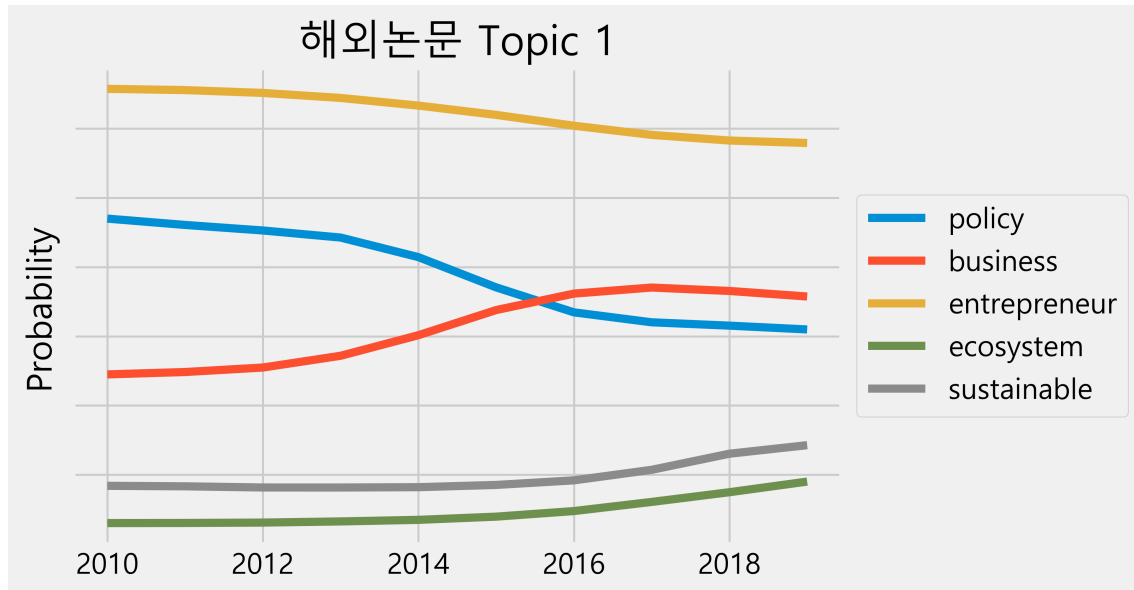
해외 논문을 살펴보면, 총 4가지 군집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로 보라색 클러스터에서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과 혁신에 관한 요인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불어 스타트업의 이론과 연구 모델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라색 클러스터의 경우, 논문의 주제 영역에 관한 이야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녹색 클러스터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가 엮여져서 등장하고 있다. 우선, 스타트업의 필수적 요소로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시장 영역으로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내수 시장의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차별화 전략과 같은 기업 전략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기술 확장과 개발을 위한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주황색 클러스터에서는 스타트업과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대응 방향에 관한 연구가 보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역할에 어떤 중요점이 있는지 시사하는 연구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성, 데이터, 교육 등의 세분화된 이슈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클러스터에서는 스타트업의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군집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가정신과 사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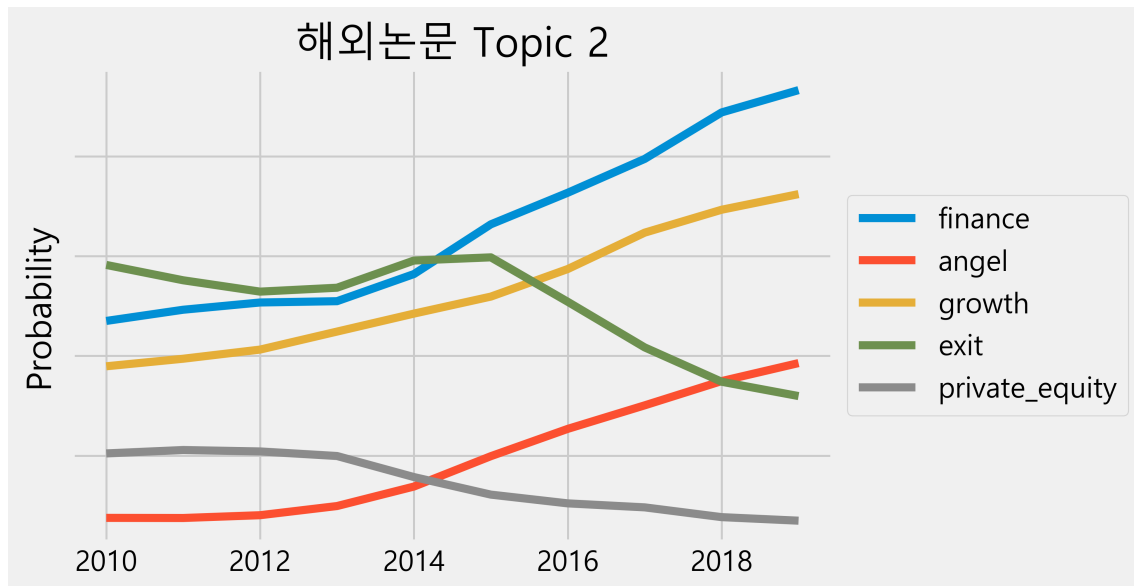
본 토픽은 해외 논문에서 사업 정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담론이 엮여져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논문과는 달리, 기업가정신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대 초기에는 정책에 대한 논문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비즈니스 분야와 교차되어,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 논문 체크>

2018년 Sustainable business models, venture typologies, and entrepreneurial ecosystems: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The successful adaptation and creation of sustainable entrepreneurial venture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ability to create more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integrated economic systems. Sustainable business models are a critical component towards this goal. However,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business models is a complex process that requires a supportive entrepreneurial ecosystem. (중략)

<스타트업의 투자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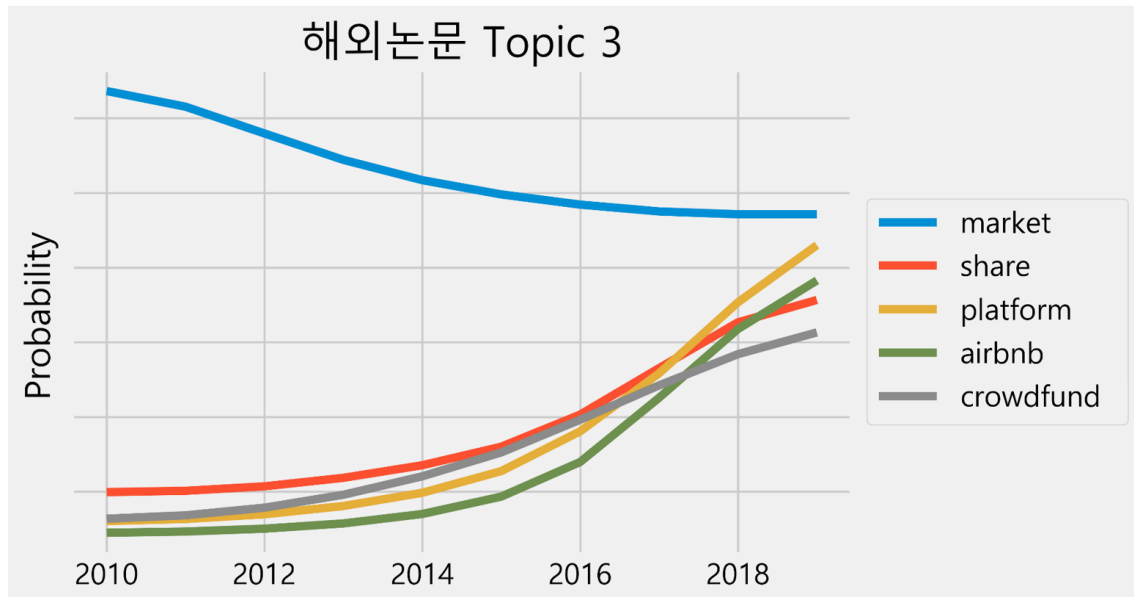
본 토픽은 스타트업의 다양한 자금 투자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 해당 토픽의 그래프를 보면, 성장에 있어, 금융과 엔젤 투자가 유사한 형태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모펀드의 경우 엔젤 투자와는 반대 방향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핵심 논문 체크>

2017년 A comparison of equity crowdfunding in four countries: Implications for business angels

Equity crowdfunding as a rapidly growing source of finance for new and growing entrepreneurial ventures poses new challenges for financial regulators and potentially disrupts the early stage risk capital market and its existing actors, notably business angels. Equity crowdfunding responds primarily to the needs of small start-ups that do not manage to access bank finance, or who do not need the larger sums available from venture capital or business angels. It is not appropriate for firms where business information is too sensitive to be shared with a large number of potential investors, nor those which require substantial amounts of follow on financing. (중략)

<스타트업과 공유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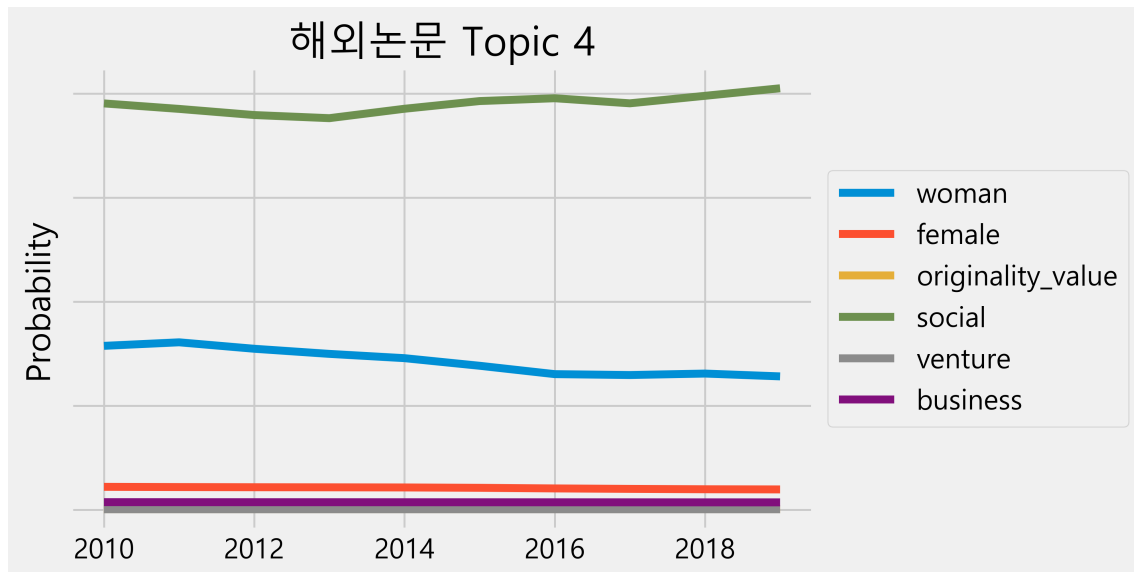
본 토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각광 받고 있는 공유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다. 총 시장규모에서, airbnb와 같은 형태의 공유 서비스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형태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 논문 체크>

2019년 Competitive Dynamics in the Sharing Economy: An Analysis in the Context of Airbnb and Hotels

The entry of flexible-capacity sharing economy platforms (e.g., Airbnb and Uber) has potentially changed the competitive landscape in traditional industries with fixed-capacity incumbents and volatile demand. Leveraging panel data on hotels and Airbnb, we study how the sharing economy fundamentally changes the way the industry accommodates demand fluctuations and how incumbent firms should strategically respond. The demand estimates suggest that Airbnb's flexible supply helps recover the lost underlying demand due to hotel seasonal pricing (i.e., higher prices during high-demand seasons) and even stimulates more demand in some cities. (중략)

<스타트업과 여성>



본 토픽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여성의 부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통적 사업분야에서 일반적 통념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곤 하였는데, 이러한 관념이 IT기반 기업으로 변화하는 현재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페미니즘, 여성의 독립적 삶을 옹호하는 문화 등의 맥락에서 나타난, 여성 스타트업 기업가에 관심을 갖는 서구문화 흐름의 일단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핵심 논문 체크>

2018년 Innovative Female-Led Startups. Do Women in Business Underperform?

The spur of innovative startups has provided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 female entrepreneurship. However, the mainstream literature on startups has elaborated a gender performance gap hypothesis. Considering the speed of technological, social, and cultural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is millennium, we wonder if this gap can still be found toda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new technology-based ventures. A financia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a sample of innovative Italian startups, and the following variables have been used to assess the company's success: (i) size, (ii) profitability, (iii) efficiency, (iv) financial structure, and (v) financial management. (중략)

5-3. SNS별 분석 결과

5-3-1. 국내 SNS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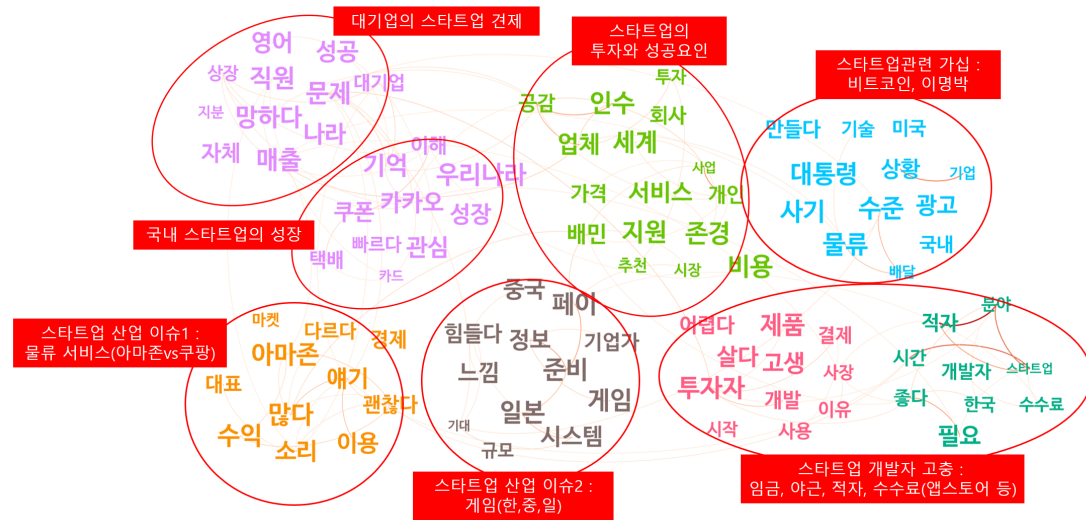
국내SNS-트위터



국내 SNS를 살펴보면 다양한 군집 형성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보라색 클러스터에서는 총3가지 축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먼저, 예비 창업자들의 교육과 지원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예비창업패키지와 같은 창업 지원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지지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스타트업 시장인 실리콘밸리와 중국 등의 스타트업 이슈가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끝으로, 일반 시민들이 새로이 등장한 서비스나 제품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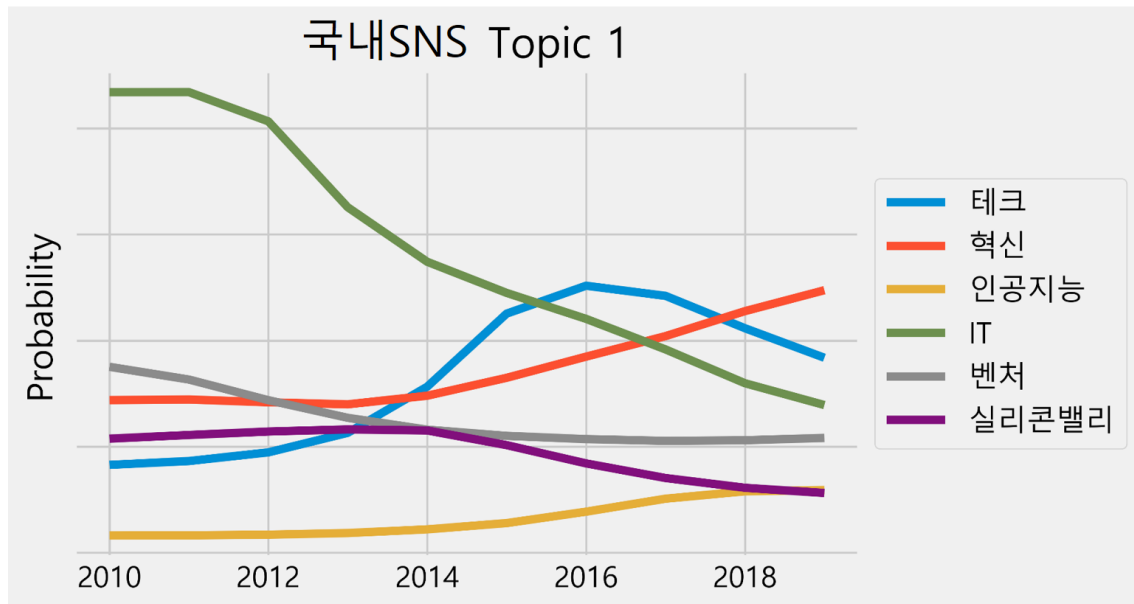
연녹색 클러스터를 확인하면 국내의 청년 창업에 대한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글로벌 창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기술 발전의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늘색 클러스터를 확인하면, 벤처기업의 미래를 위한 요인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대기업과의 상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주황색 클러스터에서는 한국의 창조 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과 내수 및 해외 시장 전략에 어떠한 발전이 필요한지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시기적 자료를 통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분홍색 클러스터에는 스타트업 업계의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진한 초록색과 회색 클러스터에는 스타트업의 인재 육성 현안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됨을 알 수 있다.

국내SNS-클리앙, 뽐뽐



클리앙과 뽐뽐란 국내 일반 커뮤니티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엮여져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보라색 클러스터의 경우 대기업으로 해석되는 특정 IT기업에서 일부 스타트업에서 먼저 서비스 된 어플리케이션 기술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배민 등 급격하게 성장한 스타트업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엮여져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연두색 클러스터의 경우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성공한 기업은 투자를 시의적절하게 받았다는 이야기가 함께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파랑색 클러스터의 경우 스타트업의 다양한 가십들이 나타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비트코인의 허구성 등 일반인들의 박탈감 등에 관한 이야기가 표출되고 있다. 더불어 빨강 및 초록 클러스터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고충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스타트업 현안들에 대한 산업계 이슈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타트업의 혁신과 인공지능>



본 토픽은 트위터 상의 다양한 게시글 중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다. IT라는 단어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는 IT가 더 이상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일반화되었기에 IT를 특정 짓지 않더라도 대중들의 지각에서 당연시되는 현상에서 기인된다고 보인다. 한편 혁신과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SNS 플랫폼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띄는데 이는 혁신의 주요 요소로서 인공지능이 함께 거론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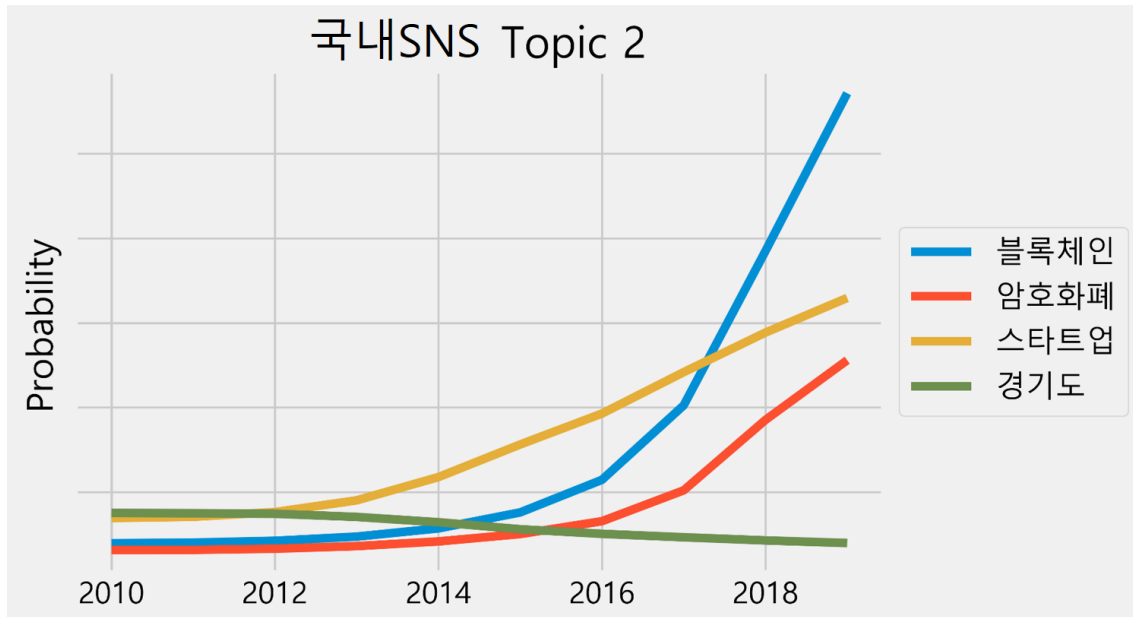
<핵심 트윗 체크>

2017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의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테크 스타트업 발굴의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해나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하러 가볼까요?

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service/program_view.do?no=1897&rnum=2&sMenuType=00040001&mainGo=Y ... pic.twitter.com/qYx9cSfsP7 (중략)

<블록체인과 스타트업>



본 토픽은 국내 SNS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한 거품으로 소비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으로 회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 트윗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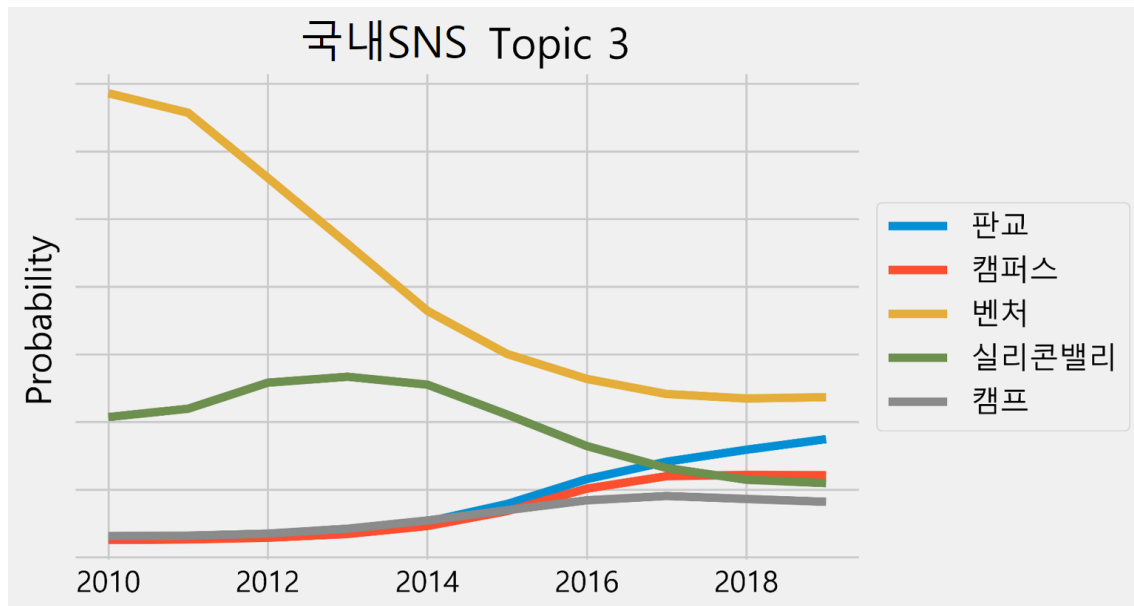
2018년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전담 #경기도 #블록체인캠퍼스 문 열어 15일, 블록체인 전문가 및 #스타트업 육성 위한 #판교 블록체인 캠퍼스 개소 입문, 심화, 전문가 등 4단계 #정규 교육 과정. #관련정책 연구 등 수행 예정 작성자 이선옥기자

<http://me2.do/FjTZhLVy>

#경기도민신문 #경기도 (중략)

<판교캠퍼스와 실리콘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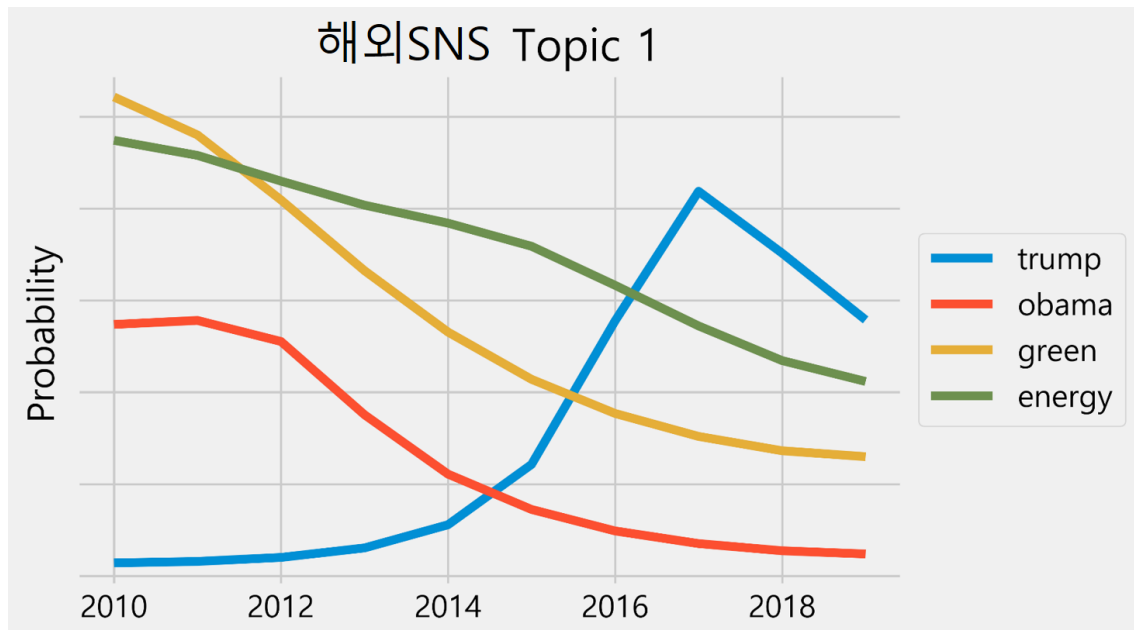
본 토픽은 스타트업 업계의 장소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토픽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토픽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벤처라는 용어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벤처라는 용어가 스타트업이란 용어로 치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실리콘밸리라는 용어와 판교, 캠퍼스라는 용어가 서로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판교라는 용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는 판교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오면서부터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트윗 체크>

2016년

"게임 스타트업의 베이스캠프...경기도 판교에 '지넥스트센터' 개소
<http://www.gamechosun.co.kr/article/view.php?no=137112> ..." (중략)

<미국대통령과 스타트업>



본 토픽은 트위터 상에서 미국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현 대통령은 트럼프가 당선된 시기를 분기점으로 영향력의 정도가 뒤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하게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스타트업의 의제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SNS 네트워크상의 이야기도 더불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통령의 교체에 따른 의제전환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모습은 대통령중심제의 체제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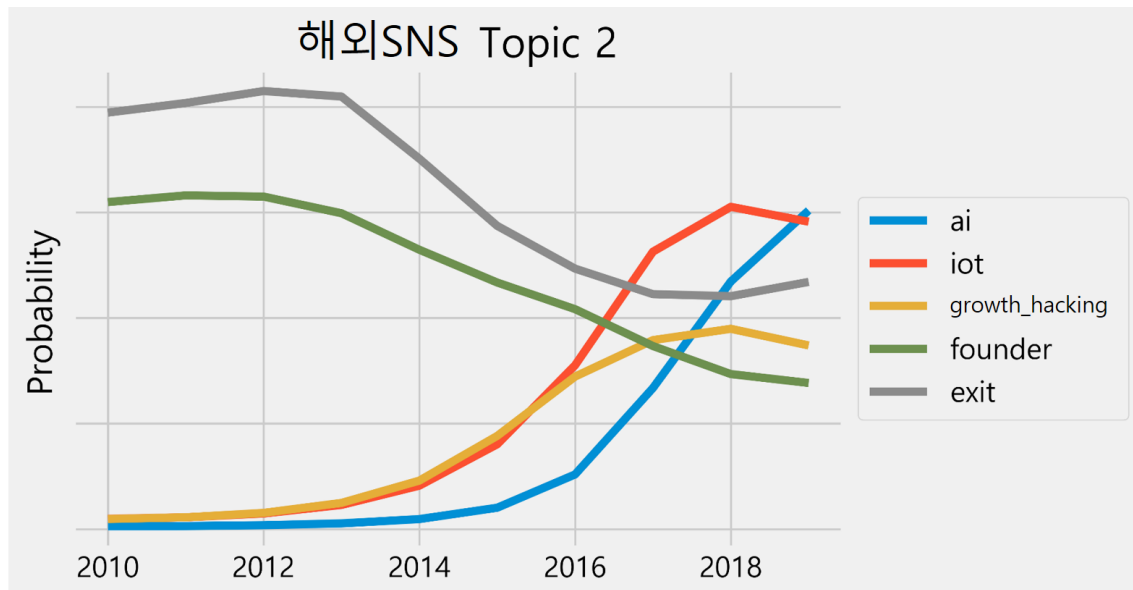
<핵심 트윗 체크>

2017년

Judge overturns Trump administration's delay of Obama-era 'startup visa,' siding with venture capital group

<https://www.geekwire.com/2017/judge-overturns-trump-administrations-delay-obama-era-startup-visa-siding-venture-capital-group/> ... (중략)

<인공지능과 IoT>



본 토픽은 인공지능과 IoT 및 그로스해킹 등 첨단 IT산업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이 부각되는 토픽으로 보여진다. IoT란 용어의 추세를 보면 일상생활 영역에서 해당 기술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AI라는 용어도 2016년부터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에 들어서, AI에 관한 SNS의 관심이 매우 빠르게 올라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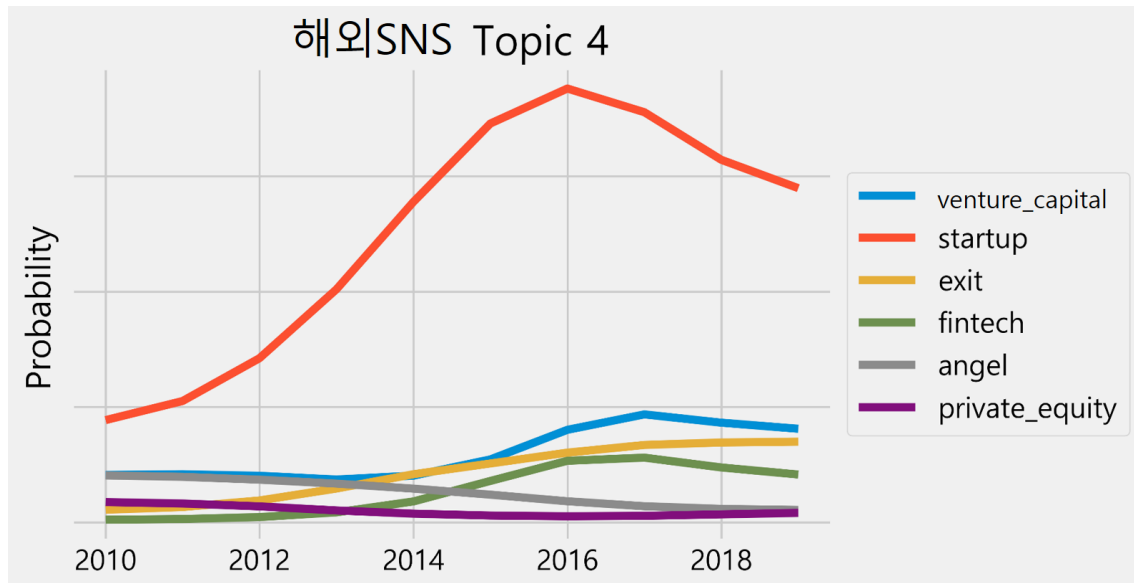
<핵심 트윗 체크>

2016년

<http://DigitalHousehold.com> is for sale #godaddy
 #domains #growthhacking #marketing #mobile #smarthome #startups #founders
 #googlers #IoT #tech (중략)

* Topic 3은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뚜렷하지 않고 Topic 구성이 일관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스타트업과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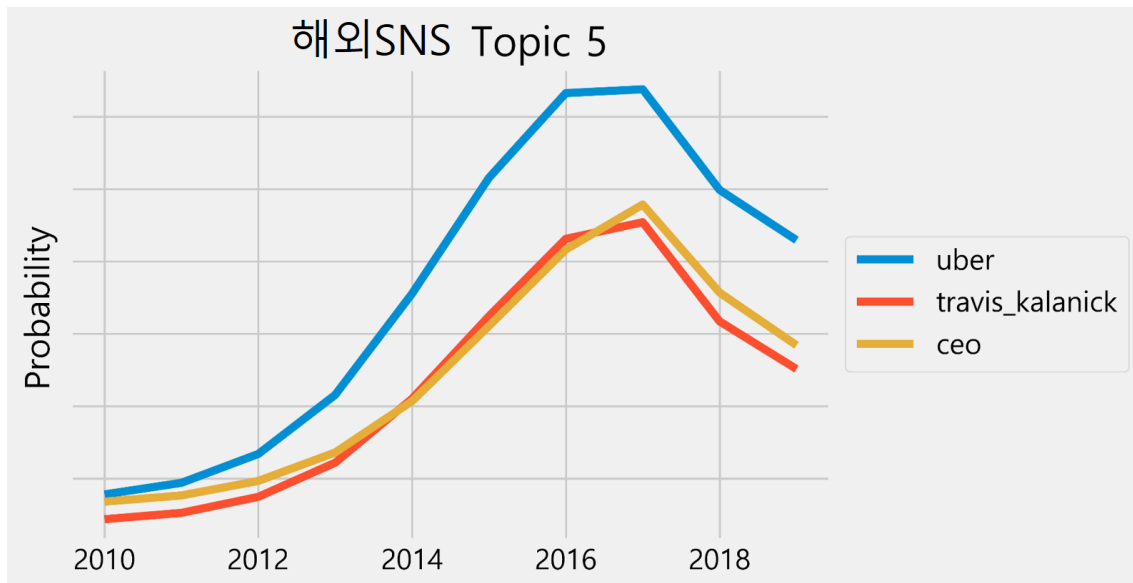
해당 토픽은 스타트업의 다양한 주제 중에서, 특히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타트업의 투자란 큰 범주에서, 벤처캐피탈에 관한 이야기가 SNS 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모 펀드에 관한 이야기는 소소하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투자와 관련된 담론은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 트윗 체크>

2018년

Private equity/venture capital firms still keen on financial services deals: EY
 #Paytm #WarrenBuffett #BerkshireHathaway #fintechstartups #NBFCs
 #financialservices #privateequity #venturecapital #financialsectordeals
 #IndiaM&Adeals
<https://www.livemint.com/Companies/A70z0m49Yq7zmQPbmE1CVM/Private-equityventure-capital-firms-still-keen-on-financial.html> (중략)

<Uber와 SNS>



본 토픽은 우버에 관한 이야기가 SNS에서 회자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버 서비스 자체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고, 동시에 우버 CEO의 스캔들 등 불미스러운 이슈에 대한 언급도 함께 등장하면서 2016년, 2017년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핵심 트윗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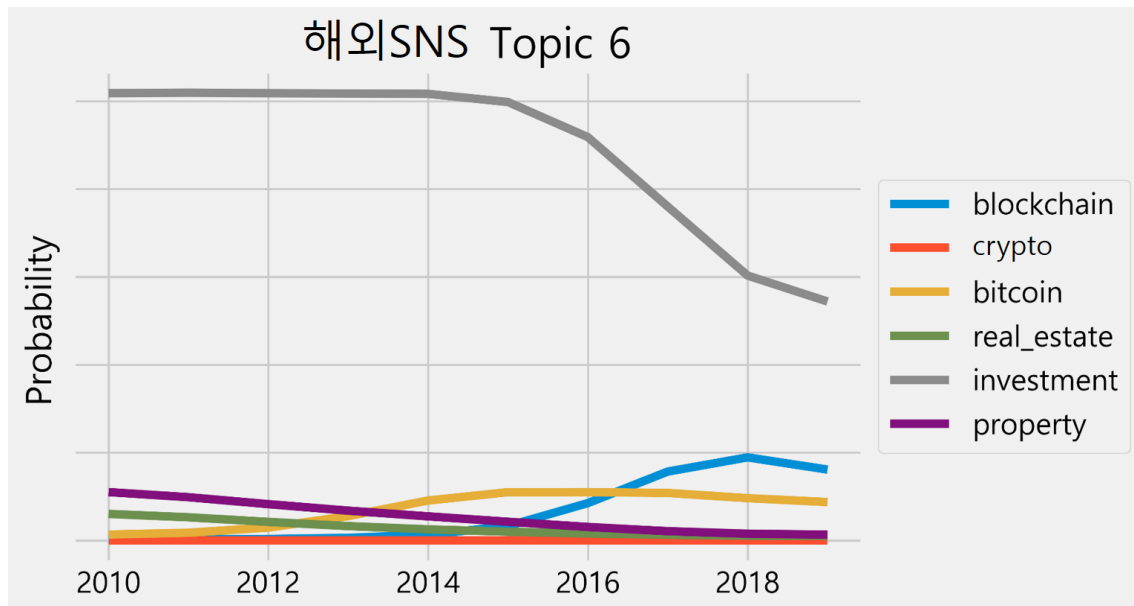
2015년

A look inside the insanely successful life of billionaire Uber CEO Travis Kalanick
<http://fb.me/Bkkklblt> (중략)

2017년

Travis Kalanick Resigns as Uber's CEO #SmallBusiness
<http://feedproxy.google.com/~r/startupmindset/~3/sRrqD7qEGIO/> ... (중략)

<블록체인과 투자>



본 토픽은 투자 형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2010년 초반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다가, 2015년 이후, 비트코인, 크립토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로 SNS상의 관심이 옮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 트윗 체크>

2018년

"create real estate investment opportunities on the blockchain, buy and sell parts of property, decentral funds, this is a game changer. combined with excellent team and a clever token ecosystem with tx fee sharing-profit from proj growth
BAM <http://www.brickblock.io>
@brickblock_io" (중략)

6. 연구의 시사점

연구결과, 국내외 스타트업 이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언론, 논문, 그리고 SNS플랫폼 상에서 국가 및 플랫폼의 차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첫째,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특히 정책의 측면에서 스타트업을 해석하는 방식에 국내와 해외의 차이가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 결과 대한민국의 창업 지원 정책은 해외 권역과 비교하여볼 때,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의 경우 엔젤 투자 및 벤처캐피털 등 사업 투자적 요소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기업가정신의 요소에 있어서도 국내의 경우 일부 교육적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것이 정책적 차원에서 담론의 핵심적인 역할을 가져간다고 볼 수 없었고, 한편 해외의 경우 기업가정신 그 자체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그 자체로서 담론수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통령중심제인 미국과 한국 모두,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따라 스타트업 관련 주제가 창조경제 ->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및 스타트업 이슈 -> 대중 무역 적자의 시정을 위한 갈등 및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문제 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용어의 활용에서 짚어보자면 국내의 경우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적인 용어들이 주를 이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사업 자금 마련에 있어서도 개별 투자보단 정부의 지원에 의한 맥락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스타트업을 이끌어가는 주체적 속성이 개별적인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다는 뉘앙스의 논조가 주요했다. 반면 해외의 경우 스타트업의 구체적인 서비스나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미시적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및 투자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었다. 가령 공유 서비스 중에서 이동 공유 서비스는 공유 서비스라는 이름 대신 우버(Uber)라 불리며, 특정 기업이 곧 해당 서비스를 대표하는 맥락을 보였으며, Facebook이나 Amazon 등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반 기업들도 특정 기업명을 통해 언급되는 맥락이 발견되었다.

셋째, 국내외를 통틀어 암호화폐 거품이 가라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인공지능(AI)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약 2016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스타트업에 관해서는 SNS매체의 경우 전체적인 담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특정 서비스에 관해 일상적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를 중심으로 핀테크와 관련된 이야기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었으며, 국내의 경우 SNS를 중심으로 배송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음식배달서비스와, 당일 배송 시스템 등이 등장하고 있었다.

참고 문헌

- 김용학 (2014). <사회연결망 분석(제 3판)>. 서울 : 박영사.
- 박자현, 송민 (201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1). 7-32.
- 손동원 (2017).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경쟁에 심표는 없다.
- 이정우, 김선우, 김영환, 이운준, 백서인, 권기환, 모미령, 정효정, 이승재 (2018). 2018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 혁신창업생태계 연구. STEPI
- 임정욱 (2015). 한국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정보과학회지 33(1), 19-25.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 Blei, D. M., & Lafferty, J. D. (2006). Dynamic topic models. In Proceeding of th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pp. 113-120). ACM.
- Blei, D. M., Carin, L., & Dunson, D. (2010). Probabilistic Topic Models: A focus on graphical model design and applications to document and image analysis. IEEE signal processing megazine, 27(6), 55.
-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55, No. 4, pp. 77~84.
- Freeman, L. C.(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215~239.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 Guo, L. (2012). The application of social network analysis in agenda setting research: A methodological explor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6(4), 616-631.
- Hida, R., Takeishi, N., Yairi, T., & Hori, K. (2018). Dynamic and Static Topic Model for Analyzing Time-Series Document Collections. arXiv preprint arXiv:1805.02203.
- Maher, T. M. (2001). Framing: An emerging paradigm or a phase of agenda setting. In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Ed. Stephen D Reese, Oscar H Gandy, and August E Grant.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molová, H., Kubová, P., & Urbancová, H. (2018). Success Factors for Start-ups Related to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and Their Relevance to Education. *Acta Universitatis Agriculturae et Silviculturae Mendelianae Brunensis*, 66(3), 791-801.